

[2008 시각예술포럼 'art archives']

'시각예술 분야 아카이브 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

-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소위원회
- 일시 : 2008년 2월 22일(금) 14:00-18:00
- 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대학로)



[2008 시각예술포럼 'art archives']

'시각예술 분야 아카이브 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

'시각예술 분야 아카이브 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2기 시각예술위원회에서는 기록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술아카이브에 대한 미술계 차원의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미술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8년 첫 번째 시각예술포럼을 개최합니다.

□ 기획취지

21세기 지식정보화의 시대, 문화의 시대를 맞아 기록문화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착 문화의 꽃인 시각예술 분야의 미술기록자료들은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보화의 수준도 타 분야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시각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했던 사정에 기인한다. 이번 포럼은 시각예술자료의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술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그동안 산발적·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미술아카이브의 통합관리를 통해 지식정보화의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한 미술계의 문화역량 강화의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민간전문자료관의 특성화와 활성화를 위한 아코 차원의 예술정책과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고자 한다.

최근 공연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아카이브 구축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국립예술아카이브 설립 방안에 관한 예술정책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아카이브 논의와 관련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던 미술계가 이번 포럼을 통해 미술계 차원의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주도적인 역할 모색을 통해 미술아카이브의 개념과 철학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 본다.

□ 진행 순서

● 사회 및 토론 : 하계훈 (단국대 대중문화예술대학원 교수)

<제1부> 국내 미술아카이브의 현황 및 활용 사례 (14:00 ~16:40)

(1) 우리나라 아카이브 제도의 현 단계-그 빛과 그늘

발제 : 이인범(상명대 조형예술학부 교수)

(2) 국내 미술자료실 실태조사

발제 : 김달진(김달진미술연구소장)

(3) 사설 미술아카이브 운영 및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

발제 : 김철효(미술사가)

(4) 온라인 아카이브의 쓸모와 바람-네오룩닷컴을 중심으로

발제 : 최금수(이미지올로지연구소장)

(5)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운영 현황과 발전방향

발제 : 이호신(아르코예술정보관장)

<제2부> 종합토론 (16:50 ~ 18:00)

□ 목차

기획취지	1
우리나라 아카이브 제도의 현 단계-그 빛과 그늘 이인범(상명대조형예술학부교수)	4
국내 미술자료실 실태조사 김달진 (김달진미술연구소장)	12
사설 미술아카이브 운영 및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 김철효 (미술사가)	35
온라인 아카이브의 쓸모와 바람-네오룩닷컴을 중심으로 최금수 (이미지올로지연구소장)	40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운영 현황과 발전방향 이호신 (아르코예술정보관장)	49

● 우리나라 아카이브 제도의 현 단계-그 빛과 그늘

이인범(상명대조형예술학부교수)

우리나라 아카이브 제도의 현 단계

- 그 빛과 그늘 -

이인범(상명대조형예술학부교수)

두 개의 문

최근 우리가 몸담아 사는 서울에서 아니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선명하게 렌드마크 기능을 해 온 역사적인 두 개의 문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하나는 광화문이고, 다른 하나는 숭례문이다. 알다시피 광화문은 “1395년 경복궁의 기본구조를 갖춘 다음 1399년 그 둘레에 궁성을 쌓을 때 세웠다. 처음에는 사정문(四政門)으로 불렸으나 1425년(세종 7) 집현전에서 광화문으로 바꾸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865년(고종 2)에 재건했다. 1927년 일제 총독부가 경복궁의 동문인 건춘문(建春門) 북쪽으로 축소 이전시켰다. 현재의 문은 6·25전쟁 때 소실된 것을 1968년 석축(石築) 일부를 수리하고 문루를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중건”하여 40년 가까이 우리의 일상에 젖어있던 것을 참여정부에 들어 유홍준 문화재청장 주도하에 더 그럴듯하게 재현하고자 다시 부수어 재건축 중에 있다. 숭례문은 1398년 도성 한양의 주출입문으로 창건되어 1448년(세종 30) 개축하여 도성의 정문이 되었다. 1934년 일본이 '남대문'으로 문화재 지정을 했으며 1962년 국보 제1호로 지정되고 1964년 중건되어 1996년에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의 하나로 '숭례문'으로 명칭을 환원했다. 서울이 근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온갖 수난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다가 이번 설 연휴가 끝나는 날 불타 소실되어 논란에 휘말려 있다.

근대 이래 이 두 개의 문을 둘러싸고 일어난 논란만큼 무성한 것도 없을 듯싶다. 광화문의 해체 재건축을 둘러싸고 일어난 논란도 적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따라잡기 어려운 속도로 재건축 작업에 돌입하여 이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지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해체 과정을 거치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해체로 인한 공백이 그렇게 까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는 않다. 양주혜, 강익중 등 활발히 활동하는 현역 미술인들을 동원한 화려한 차단막 장치 등 감성적 진무 작업이 곁들여진 것도 사적지 않게 위안이 되

있을 듯싶다.

그런데 비해 하룻밤 사이에 날벼락 치듯이 일어난 승례문의 소실은 유구한 시간 동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온 사람들은 물론 그동안 단 한번만이라도 이문의 존재를 감성적으로 누렸던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그 국적을 불문하고 그 충격이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가슴 한가운데에 엄중하게 자리를 차지해 왔던 그 존재감과 믿기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확인되는 그 부재 사이에 가로놓인 간극을 누군들 종잡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아카이브 혹은 삶을 향한 우리의 태도

오늘 우리는 문화재보호법이라는 모범을 근거로 엄중히 모시는 국보 제1호인 승례문 참사나 광화문 재건축과는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매우 하찮고 사소해 보일지도 모르는 우리나라 시각예술문화 관련 아카이브 제도의 현 단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께 자리했다. 아카이브는 사전적인 정의와 같이 기록 보관소 정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아카이브제도는 서구 근대기에 도서관, 뮤지엄 등과 더불어 인류가 자신의 문화유산을 조사 연구하고 수집 보존하여 후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승시키려 고안하여 인류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제도적으로 근대기를 거치며 정착된 공공적 장치들 중 빼놓을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인간의 삶의 세계의 역사를 증거 하는 인위적인 삶의 기록들이란 그 내용과 형식에서 인간의 삶의 양태만큼이나 다양하며, 그 만큼 서구나 일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아카이브들이 구현되어 삶의 해석과 문화예술 생산의 인프라로 기여해 왔다. 잘 알다시피 미술사학을 인문학의 꽃으로 피워냈다는 평가를 받는 파노프스키의 미술사학의 모태나 콰브리치의 활동공간은 아카이브 바브르그연구소였다. 최근 번역 간행되어 우리 손에 쥐어진 『헤겔 예술철학』(미술문화)은 헤겔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던 그의 제자 H. G. 호트의 1923년 베를린 대학시절 강의 필기록을 다시 꺼내 안네마리 게트만-지페르트가 재편집한 것이다. 서구의 르네상스가 그리스 로마의 각종 기록자료들이나 작품들의 발굴에 잇닿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 걸출한 조선 초의 대표적인 화가 안견의 회화적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안평대군의 컬렉션과 관계있다는 사실도 여러면에서 고증되고 있다.

하지만 근대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아카이브 제도에 대한 논의는 아직 매우 초보적인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오늘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승례문 소실이나 광화문 개축 등 두 개의 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이러한 사태가 우리의 열악한

아카이브 제도 상황이나 현 단계의 인식의 수준을 그대로 비춰 주는 거울 같기 때문이다. 사실 승례문, 광화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아카이브 제도 논의는 자료들의 형식과 성격에서 차이를 드러낼 뿐 그 이념적이고 철학적인 토대에 있어서 그다지 다른 것이 아니다. 문화재청, 각종 뮤지엄, 도서관, 자료관, 기념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기구들은 그들이 다루는 자료들의 규모의 크고 작음, 시각적 장대함이나 장식적인 화려함, 역사적인 거리의 원근 등 형식과 내용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것들이 인간의 삶을 증거해 내고, 재해석하기 위한 자료들을 조사 연구 수집 보존 관리하여 전시하여 민중들이 활용하고 향유하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된 공적인 기구라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ICOM 정관 제 1, 2조를 참조할 것)

우리사회가 자료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역사적 삶, 아니 삶 자체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맞는 숨씨가 어떠한 것인지는 최근 주목하게 된 승례문이나 광화문을 둘러싸고 취해 온 태도들이나 그 처리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이 자리가 그 시시콜콜한 사안들을 일일이 다루자는 자리는 아니다. 다만 승례문 화재에 대해 관리 책임당사자들의 다음 같은 단편적인 언급들에서 우리의 자료 인식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온 국민이 화재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그 날 아침나절 참사현장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고 전해진다. “국민들이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2, 3년 내에 승례문을 훌륭한 모습으로 복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한편, 파리 외유에서 돌아온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그 다음날 아침 방송 시사프로 대담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같은 어조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의 문보다 더 훌륭한 승례문을 지어 국민이 만족해하고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승례문의 국보 제1호 지위를 유지하기로 문화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발표를 한다. 이러한 전문가나 책임자들의 말잔치와 함께 불탄 남대문의 흔적들 중 일부는 신속하게 쓰레기 처리되었고 그 현장은 높은 장벽으로 가려졌다. 아니나 다를까 문화재청 혹은 그 주변에서 얼씬 거리고 있는 관변학자들의 입에서는 작은 조직과 예산 타령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민다. 화재로 일순간에 소실된 승례문이나 재건축 논란에 휩싸였던 이러한 전후 사정들을 통해, 우리는 가깝게는 지난 시대의 자료들을 둘러싼 문화정책적 차원의 입장들, 좀 더 거시적으로는 삶의 역사를 증거 하는 자료들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과 태도들의 수준이 거칠게나마 확인된다.

첫째, 자료적 가치의 판단기준이 역사적 삶의 가치나 의미, 과정보다는 오히려 스펙터클한 시각적 효과나 작용, 결과에 치우쳐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책적 관심사 역시 역사적 사실의 진실성을 향한 학술적 조사 연구나 그것의 유지 보존, 심도 있는 해석보다는 지금 당장의 활용,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과

시적 성과나 선동적 가치 같은 전시효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그에 따라 자료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론적 엄정정보보다는 이데올로기적 목적에 따라 그 가치가 판정되거나 보존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자료가치의 판단기준은 그 자체로서보다도 대개는 민족, 계급 등의 이데올로기 혹은 특정한 목적에 종속적이기 십상이다.

셋째, 문화재의 가치가 원본성이나 상징적 가치 혹은 삶의 (감성적) 진정성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단지 그것이 지닌 정보적 혹은 인지적 가치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혼돈은 디지털시대에 접어들면서 포스트모더니즘적 가치관에 편승해 실물 가치와 디지털 정보가치의 혼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넷째, 자료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자료 자체나 인간의 삶에 대한 인문학적 의욕에서 출발하기보다는 한 때 식민지 전략으로 상실했던 민족문화의 독자성과 우월성을 대외적으로 확인시키고 과시하고자 하는 도구적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때로는 국수주의적 위험성마저 쉽게 드러난다. 다양한 형태의 전 국민적인 애도의 물결에서부터 그에 편승한 관리 책임당사자들이나 전문가들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남대문 화재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양상들은 그래서 학문적이기보다는 민족 종교적 색채마저 드러난다.

다섯째, 정부의 정책적 접근 역시 여지없이 삶의 의미나 가치의 인문학적 확인이나 과학적 보존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학적 지평의 확장보다는 이러한 일시적인 국민 정서 눈치보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것을 부추기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개는 자료적 가치의 확인은 진실을 향한 과정적 모색을 건너뛸 채 성급하게 결과주의적인 단정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이러한 일련의 태도들은 때로는 자료적 가치를 우리의 삶을 증거하거나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기 위한 실마리로서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분석하는 도구적 수단으로 임혀지곤 한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역사나 자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크게 왜곡된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열등했다고 여겨지는 시기의 삶을 증거하는 자료들, 선전적인 측면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자료들, 시각적으로 스펙터클하지 않은 자료 등은 여기서 홀대되거나 간과된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아카이브 제도의 현실의 열악한 사정은 이러한 사정들과 무관하지 않다. 중후장대하여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자료들은 모르되 경박단소하여 시각적 엔터테인먼트 효과가 그다지 발생하지 않는 자료들에 대한 무관심은 일상의 삶의 기록물들, 과정적인 삶의 흔적들에 대한 가치 폄하의식이 짙게 드러난다. 물론 숭배 속에 뮤지엄이 그나마 자리를 잡아가는 것과 달리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니 적어도 아카이브 제도에 관한한 식민지적 근대성이 안을 수밖에 없었던 불행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문화 자

료에 대한 학술적 조사 발굴은 1902년 세키노 다다시(關野 貞) 이래 대부분 일제의 주도아래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착수되었으며 그 결과는 늘 식민 지배이데올로기의 생산에 악용되었음은 여러 연구들이 입증하고 있다. 1915년의 조선물산공진회 이래 박람회 개최, 고적조사사업, 총독부박물관과 이왕직미술관 운영, 조선미술전람회 등은 역사적 자료와 진실의 조사 연구 확인보다는 그 결과물의 프로파간다적 가치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그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맞대응 역시 진실에 맞서는 용기보다는 식민지배 논리의 전복이라는 목적 지향적인 특성을 드러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판단 근거로서의 1차적인 자료의 조사 수집은 일제에 의해 장악됨으로써 제대로 된 아카이브나 뮤지엄 제도에 대한 궁리의 기회조차 우리는 갖지 못했다.

문제는 이러한 식민잔재가 해방 후 건국 이후에도 형식적으로 극복되고 있기보다는 형태를 달리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내용적으로 혹은 이념적으로 일제에 의해 부정되었던 민족 문화의 독자성을 뒤집어 과시하고 선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전되었다는 점에서 변화되었을 뿐이다. 문화정책은 진실의 발굴하고 추구하는 과정보다는 그 결과의 전시나 선전 효과에 초점이 맞춰졌다. 예컨대, 전근대적인 전시 형태인 국전의 개최 같은 이벤트에 무게가 실렸으며 뒤늦게 착수된 뮤지엄 정책 역시 조사 연구 업무를 간과한 채 노출적인 전시업무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니 삶의 해석을 위한 1차적인 자료나 진실에 대한 관심은 우선순위에서 벗어나게 마련이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근현대 미술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수집 보존 관리 전시 교육이라는 일종의 자료관을 겸할 수 밖에없는 뮤지엄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전 전시 업무같은 행사대행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그 단적인 예이다. 애초부터 유의미한 자료나 작품의 조사 연구나 컬렉션과는 무관하게 출발한 셈이며 그 관행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자료에의 관심이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심경의 반환 문제의 경우와 같이 그 삶의 가치 자체보다는 단지 문화적 우월성을 입증하여 식민 콤플렉스를 보상하기 위한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두드러질 뿐이다. 그런 점에서 때때로 국민적 관심이 설혹 자료를 향하고 있다하더라도 정작 삶의 흔적과 자료를 공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자료를 관장하는 공공적인 성격의 인스티튜트로서 아카이브는 물론 뮤지엄이나 도서관 제도 역시 여전히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조하는 자료들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은 사적 소유 상태로 밀폐되어 학술 연구나 창작 역시 인륜성이나 공공성을 갖기란 쉽지 않다.

이렇듯이 근대적인 아카이브 시스템의 부재로 그 대신 우리가 받게 된 대가들은

혹독하기 그지없다. 연구자들은 끊임없이 열악한 조건에서 빈곤한 자료를 찾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가 하면 늘 지적 낭인군이 흐름을 지배한다. 미술계는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지는 작품의 위작시비, 표절시비로 시달린다. 자신의 진정한 창의성이나 차별성을 이끌어낼 원천도 컨텍스트도 분명치 않으니 늘 진정한 창작자들이 설 자리는 허술하기 그지 없다. 밀려오는 서구의 유행을 상품같이 소비하고 현혹되어 그 카피들을 만들며 굿판을 벌인다. 미술현장은 공허한 전시, 이벤트 등 표피적인 행사로 치닫기 일쑤다. 호화판 도록들과, 출판물들이 범람하지만 정작 자료적 가치를 지닌 것을 찾기는 어렵다.

작품에 대한 맹목적이고 물신적인 믿음은 팽배해 있으며 그 작품들의 가치의 생성 동인이나 과정에 대한 해석학적 관심은 희박하다. 드로잉 등에 대한 무관심, 작가들의 생애와 삶을 보여주는 각종 기록물들에 눈길을 줄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러나 비평적이고 학술적 평가들이 피상적인 수준에서 맴돌고 작가들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신화시대를 방불케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이든 뮤지엄이든 시장 그 어디를 막론하고 스페셜리스트들보다는 천박한 일시적인 흥행사적 자질을 지닌 비윤리적인 인물들이 홍수를 이룬다. 연구사적 맥락이나 과정 혹은 연속성을 담보할 삶의 토대보다는 서구의 지적 트렌드를 추수하며 탐닉하며 부유하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간의 시도들

그동안 아카이브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특히 이 자리에 패널리로 함께한 여러 분들과 매우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1986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신축이전 개관과 더불어 직제에도 없는 자료실이 이경성 관장의 관심으로 개설되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김달진 선생이 각종 카탈로그 수집 등에 착수하였으며 그 성과는 오늘날의 김달진연구소, 달진닷컴으로 이어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20년에 가까운 경력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퇴했지만 유순남 선생도 여러 해 동안 미술관 자료실을 위해 도서 및 각종 미술 자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김철효 선생은 1998년부터 리움의 한국미술기록보존소의 구축에 종사하여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최금수 선생은 네오룩을 구축하여 미술정보의 디지털시대를 개척하는 데에 기여했다. 모두 아카이브 제도 정착에 선구자적 희생을 무릅쓴 분들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제도적 기반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아카이브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뼈아픈 실패 경험을 갖

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국립현대미술관에 큐레이터로 재직할 당시 부설로 한국근현대미술자료센터 구축을 위한 시도가 좌절된 것이다. 애초 본인의 관심사는 미술관 운영이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 근현대미술아카이브의 구축 없이 경직된 컬렉션 정책이나 전시업무만으로는 한국미술의 진정한 맥락을 조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폭넓게 드로잉, 일기, 서간, 저널, 사진자료, 유품 등 미술자료 컬렉션을 형성하는 일에 착수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미술관을 사퇴하는 빌미가 되었다. 이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다시 시도한 한국예술아카이브 역시 구축에 실패하고 말았다. 두 국립 기관을 근거로 삼은 이러한 시도의 실패는 부분적으로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역량의 한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든 우리 미술계와 국가사회 공동체가 예술사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드러내는 사례라 생각된다.

성공사례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리움의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설립과 관련된 것이다. 1995-96년 중 삼성현대미술관 건립을 위한 기초 설계시 일원으로 참여하며 아카이브 설립을 적극적으로 제안했으며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설립으로 이어졌다. 애초에 저비용으로 효과를 도모할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금부터 6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정보관에 제기한 한국근현대미술사구술채록사업 제안이 받아들여져 그 기초설계에 참여한 이래 지금까지 105명의 원로예술인 각각의 구술채록문집과 음성 영상 채록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의 근현대문화예술의 거점 공간 <1950년대 명동의 다방과 술집>을 주제로 한 구술채록작업에 참여하여 기여한 것도 감히 성공사례로 보고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맺으며

<우리나라 미술아카이브 제도의 현 단계>를 조망하며 20년 전 처음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의 입장에서 썼던 <국립현대미술관의 성립과 그 현 단계>라는 제목의 글이 기억에 새롭다.

다들 세상을 표상하는 권력은 이제 문자에서 이미지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었다고 호들갑이다. 우리는 아직 시작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미술관, 아카이브 제도.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계몽기를 거치며 실증주의적 세계관과 진품(real thing)에 기초한 근대적인 사물관 위에서 전개되었던 화려한 미술관과 아카이브의 시대, 눈의 신전의 시대는 시물라크르의 세계로 뒤범벅되어 가며 그 진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도전이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의 삶의 기록들에 대한 믿음이나 권위와 함께 아카이브 제도 자체가 권력인 서구에서는

그에 대한 의구심이나 전복적 기도도 적지 않다. 근대적 지식의 계보학을 가능케 했던 뮤지엄이나 아카이브, 도서관 시스템은 그렇지만 여전히 열악하기 그지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전근대기적 신화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지만 천문학적인 예산들이 정처없이 근거도 없는 전산화 작업이나 픽션으로 넘치는 콘텐츠 산업으로 흘러들어간다.

삶의 흔적과 기억들, 삶의 가치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수준은 그렇듯이 여전히 부질없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제1세대 연구자들이나 컬렉터들은 작고하거나 노쇠하여 그들이 사적으로 모았던 그 나마의 컬렉션들도 그 향후 행방도 묘연하기만 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 예술장르 자료들이 집산되고 있는 아르코예술정보관을 예의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기대를 불러 모으는 것은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공적 기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자를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스텝구조의 구축 없이는 이러한 기대는 허망한 일이다. 아카이브 하나 없는 우리 문화계가 공허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자 없는 아카이브 역시 맹목적인 것이니 말이다.

● 국내 미술자료실 실태조사

김달진 (김달진미술연구소장)

국내 미술자료실 실태

김달진 (김달진미술연구소장)(1)

1. 미술자료의 특성

情 報 : 사물의 내용이나 형편에 관한 소식이나 자료.

資 料 : 무엇을 하기 위한 재료. 특히 연구나 조사 등의 바탕이 되는 재료.

contents :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및 이들의 집합물

archives :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 보존기록을 수집·보존·관리하는 기관

정보화시대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얻어 쓸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홍수 속에서 취사선택을 요구한다. 정보(情報)는 어떤 사정이나 상황에 관한 소식 또는 그 자료나 내용을 말한다. 즉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취할 수 있는 가공되지 않은 형태의 모든 소식인 셈이다. 정보는 사회적 수요가 있는 곳에서 생산되어 가공이라는 가치 창조 작업을 거쳐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강구될 때 유통이 원활하게 된다. 사회적 수요를 외면한 정보는 아무리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도 그 가치를 잃게 된다. 또 아무리 유용한 정보라 할지라도 그 전달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면 제 기능을 살리지 못한다.

미술자료는 미술관계의 전문도서, 간행물, 행정자료, 학위논문집, 브로슈어, 팜플렛, 포스터, 사진, 신문, 리프렛, 일기, 서신, 문서 등 인쇄자료와 필름, 슬라이드, 테이프, 음반, 비디오물 등의 시청각자료 등을 말한다. 미술자료는 크게 개인자료와 총체적 자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작가 개인의 창작활동과 관련된 자료이며 후자는 특정시대, 특정지역, 특정유파의 활동과 관련하여 단순히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 단체, 전시 및 학술적인 연구와 업적 발표 등의 총체적인 활동과 그 결과물들을 한나라의 혹은 인류의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라는 측면에서 대개는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한다.

(1) www.daljin.com

개인자료는 한 작가의 창작행위 및 작품의 발표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유형의 자료를 포함한다고 말 할 수 있다.

물론 가장 1차적인 자료는 넓은 의미에서 작품 그 자체이며 그밖에 2차적인 자료로써 작품과 관련된 스케치나 원형, 혹은 복제물이거나 슬라이드나 사진 같은 작품의 대용물이 있을 것이다. 또한 작가 자신에 의해 기록이건 타인에 의한 기록이건 간에, 작가나 혹은 작품에 대한 연구 및 비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의 참고자료들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서 그 작품의 이동이나 소장 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을 테고, 그밖에 작가의 행적과 작품에 전거가 될 만한 어떤 것이 라도 개인의 미술자료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또한 작품자체를 제외하고서라도 관련된 자료의 크기나 형태는 거의 무제한이라 할 만큼 다양하다. 작가의 스케치북 이나 일기장이나 메모쪽지, 주고받은 편지들, 가지가지의 민원서류들을 포함한 상장이나, 문서들, 영수증도 있을 것이다.

전시카다로그와 초청장, 포스터 등을 포함해서 책자형태의 자료도 다양할 것이고 신문이나 잡지 등의 스크랩 자료들, 작품과 작가의 행적을 담은 슬라이드나 인화 된 사진이나 네가티브 스틸, 혹은 그것을 모아놓은 파일이나 앨범,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이 있을 것이다.

2. 미술자료실 현황

미술자료실(여기서는 미술도서실 · 자료실 · 자료관 · 정보관, 아카이브 명칭을 모두 포함한다)이란 미술분야의 자료를 전문으로 취급, 관리하는 자료실이다. 미술자료실은 미술이라는 단일 주제 분야를 취급하는 특수성 때문에 전문자료실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내의 사례를 볼 때 미술자료실은 대부분 미술관, 화랑, 미술 대학 및 유관 기관의 부속시설로 설치되어 있고, 이 때문에 소장자료의 특성은 기관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미술자료실은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설기관, 대학, 개인자료실로 구분되지만 여기서는 국공립미술관 과 사립미술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사방법은 2007년 5, 6월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해 담당자 면담 또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1차적으로 국 공립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과 대표적인 사 립미술관인 삼성미술관리움 자료실과 한국미술기록보존소는 직접 출장을 가서 자료실을 둘러보고 담당자를 만났다. 그리고 2차로 규모가 크고 활발하게 운영되 고 있는 사립미술관을 중심으로 17개소를 선택하여 설문지를 보냈다. 김종영미 술관, 모란미술관, 성곡미술관, 소마미술관, 영은미술관, 포스코미술관, 한미사진 미술관, 환기미술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미술관과 인사미술공간, 예술

의 전당 한가람미술관과 서예박물관에서 응답해 주었다. 회신이 오지않은 미술관은 금호미술관, 대림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일민미술관, 토탈미술관 5개소였다. (<표1> 한국의 미술자료실 현황' 참조)

<표1> 한국의 미술자료실 현황

기관명	도서류 (권)	연속간행물 (종/권)	비도서류 (부)	자료관리 프로그램	1년예산 (원)	1년 자료 구입비 (원)	직원수 (명)	연이용자 수 (명)	연면적㎡ (평)	좌석수 (석)	공개여부
경기도미술관	422	16종	250	없음	52억3천	360만	0	*	100㎡(30)	6	비공개
경남도립미술관	2,456	13/604	1,426	없음	22억3천	800만	1	2,987	118㎡(36)	16	공개
광주시립미술관	1,757	* /1,653	30,000	MARC	30억	300만	1	*	66㎡(20)	10	비공개
국립현대미술관	15,180	100/3,200	20,012	MARC	237억5천	2,600만	2	5,280	495㎡(150)	24	공개
김달진미술연구소	5,000	110/2,750	*	책꽂이	*	*	1	*	165㎡(50)	6	예약제
김종영미술관	657	30/ *	988	엑셀	3억5천	500-700만	1	15	33㎡(10)	25	공개
대전시립미술관	4,589	12/1,847	13,205	없음	24억8천	500만	1	260	246㎡(74)	40	공개
모란미술관	400	6종	8,000	없음	3억	300만	1	*	74㎡(22)	수시 이동	부분공개
부산시립미술관	6,476	22/ *	12,399	자체제작	39억	1,700만	1	3,789	236㎡(72)	48	공개
삼성미술관 리움	46,000	* /18,800	11,000	DDC	*	*	*	*	*	*	비공개
서울시립미술관	16,190	50/ *	2,260	자체제작	115억6천	1,700만	1	6,000	212㎡(64)	18	공개
성곡미술관	5,400	*	3,800	북매니저	9억	720만	2	*	73㎡(22)	4	비공개
소마미술관	450	12/672	548	자체제작	17억	수시책정	1	*	79㎡(24)	13	부분공개
아르코미술관	478	27/757	3,817	없음	수시책정	수시책정	2	*	93㎡(28)	수시이 동	비공개
영은미술관	1,000	28/5,000	4,050	없음	7억	1,000만	1	*	83㎡(25)	50	비공개
서예박물관	500	10/500	1,700	없음	2억2천	210만	0	*	99㎡(30)	0	비공개
한가람미술관	*	*	1,500	없음	4억4천	327만	0	*	83㎡(25)	0	비공개
인사미술공간	856	60/400	1,410	책꽂이	6억5천	2,000만	1	1,500	83㎡(25)	30	공개
전북도립미술관	907	9/297	761	없음	19억5천	300만	1	*	63㎡(19)	6	비공개

포스코미술관	700	*	*	*	2억2천	수시책정	2	*	37㎡(11)	*	비공개
한국미술기 특보존소	6,680	* /4,570	85,440	Glims	*	*	*	*	*	*	예약제
한미사진미 미술관	1,200	7/412	1,700	엑세스	6억	2,400만	1	210	35㎡(10.5)	5	부분공개
환기미술관	1,000	7/800	8,400	없음	12억	1,200만	1	*	53㎡(16)	6	부분공개

1) 경기도미술관

경기도미술관은 2006년 10월에 개관했으며 미술자료실은 홍보사업팀에 소속되어 있다. 내부직원에게만 공개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30.25평, 열람좌석수는 6석을 보유하고 있다. 소장자료는 도서 422권, 연속간행물 16종에 불과하며 금년 자료 수집 예산은 3,600,000원으로 책정되었다.

2) 경남도립미술관

미술자료실은 학예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36평, 좌석수는 16석이다. 소장자료는 도서류 2,456권, 연속간행물 13종 604권, 비도서자료 1,426종, 시청각자료 364종이다. 연이용자수는 2,987명이며 2007년 자료수집 관련 예산은 8,000,000원이다.

3) 광주시립미술관

미술자료실은 학예실 소속으로 내부직원에게만 공개하고 있으며 공간자체가 사무실과 떨어져 다른 건물에 있다. 면적은 약 20평으로 열람좌석수는 10석이다.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도서류 1,757권, 연속간행물 1,653권, 비도서자료 30,000종 등이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료실 보다는 신축미술관 내 일반공개 자료실을 활성화하려고 한다.

4)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자료실은 약 150평으로 열람좌석수는 24석이다. 소장자료는 도서류 15,180권, 연속간행물 100종 3,200권, 팸플릿 20,012종, 포스터 300여종과 미술인 10,446명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시청각자료는 CD-ROM 300점, DVD 115점, 슬라이드 약 20,000점 등을 보유하고 있다.

5) 김종영미술관

자료실 면적은 약 10평으로 좌석수는 25석, 도서류 657권, 연속간행물 30종, 비도서자료 988종을 보유하고 있다.

6) 대전시립미술관

미술자료실은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되었으나 금년부터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면적은 74평, 좌석수는 40석으로, 도서류 4,589권, 연속간행물 12종 1,847권, 팸플릿 13,205종을 소장하고 있다. 자료실 열람 서비스의 실제 운영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7) 모란미술관

자료실 면적은 약 22평이며, 도서류 400여권, 연속간행물 6종, 비도서자료 8,000종을 보유하고 있다.

8) 부산시립미술관

자료실 면적은 약 72평이고 좌석수 48석, 도서류 6,476권, 연속간행물 22종, 팸플릿 2,454종, 도록 9,945종, CD-ROM 132종, DVD 224종을 소장하고 있다. 연이용자수는 외부 3,239명, 내부 550명으로 파악된다. 부산시립미술관은 몇십년간 자료수집을 해온 이용길씨가 기증한 미술자료를 위해 미술관 지하 1층에 73평 규모로 미술정보센터를 조성중이다.

9) 삼성미술관 리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삼성문화재단은 두 곳에 미술자료실을 가지고 있다. 서울의 삼성미술관 리움 도서실은 삼성미술관 리움 2층, 아동교육문화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공개로 삼성문화재단, 월간미술, 삼성계열사 직원에게만 이용된다. 용인 호암미술관에 있는 한국미술기록보존소는 한국의 근현대미술 아카이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연구자에게 예약제로 공개하고 있다.

10) 서울시립미술관

자료실 면적은 약 64평이고 좌석수 18석, 도서류 16,190권, 연속간행물 50종, 팸플릿 2,260종 등이 있다. 최근 3년간 수집된 자료건수는 2004년 1,202종, 2005년 1,945종, 2006년 1,347종으로 조사되었다.

11) 성곡미술관

자료실 면적은 약 22평으로 도서류 5,400권, 비도서자료 3,800종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자료수집 추이는 2004년 1,066건, 2005년 1,088건, 2006년 889건으로 파악되었다.

12) 소마미술관

2006년 소마미술관 내에 소마드로잉센터가 개관하면서 11월에 미술자료실도 문을 열게 되었다. 면적은 약 24평, 좌석수는 13석, 소장자료는 도서류 450권, 연속간행물 12종 672권, 미술 인명자료는 78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드로잉 관련 자료를 특화하여 해외 드로잉센터와의 교류도 증대할 예정이다.

13) 영은미술관

자료실 면적은 약 25평이며 좌석수는 50석이다. 도서류 1,000권, 연속간행물 28종 5,000권, 비도서자료 4,050종 등을 보유하고 있다.

14)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자료실은 약 25평의 규모이며 별도의 열람 좌석은 없다. 내부 직원용으로 비도서 자료 1,500종을 보유하고 있다. 2007년 미술관 총예산 4억4천만원 중 자료수집 예산은 327만원이었다.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자료실 면적은 약 30평이고 별도의 열람 좌석은 없다. 이 역시 내부직원용이며 도서류 500여권, 연속간행물 10종 500권, 비도서 자료 1,700종을 보유하고 있다. 2007년 서예관 총예산 2억2천만원 중 자료수집 예산은 2,1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15) 전북도립미술관

미술자료실은 내부용으로 운영되며 면적은 약 19평, 좌석수는 6석이다. 도서류 907권, 연속간행물 9종 297권, 비도서자료 761종을 보유했다.

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자료실 면적은 약 28평으로, 도서류 478권, 연속간행물 27종 757권, 비도서자료 3,817종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인사미술공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젊은작가를 위해 운영하는 공간으로 2005년부터 아카이브 활동을 시작했다. 다양한 전공 분야의 접근이 가능한 미래형 아카이브로 급진적 프로젝트의 출현, 작가와 연구자의 협업을 가능케 하며, 작가포트폴리오, 영상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다. 소장자료는 도서류 856권, 60종 400권, 비도서자료 1,410종, 영상자료 156점, 작가포트폴리오 234점 등이 있다.

17) 한미사진미술관

도서자료실과 열람실 면적은 약 10.5평이고 좌석수 5석, 도서류 1,200권, 연속간행물 7종 412권, 비도서자료 1,700종, 미술인명자료 170명 등을 보유하고 있

다. 미술관의 2007년 총예산은 6억원이고 이 중 자료수집 예산은 2,400만원이다. 자료수집은 영상, 도서, 근대사진관련 회귀본, 신문 사진기사 리서치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느 미술관보다 높은 예산을 책정했다. 최근 3년간 자료 수집은 2004년 546종, 2005년 960종, 2006년 1,066종을 입수했다. 자료 열람은 내부 직원 및 일반인에게 부분공개하고 있다.

18) 환기미술관

자료실 면적은 약 16평, 좌석수 6석으로 도서류 1,000권, 연속간행물 7종 800권, 비도서 자료 8,400종, 미술인명자료 200명 등을 보유하고 있다.

3. 미술자료실 실태

한국의 미술자료실은 대표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한국미술기록보존소와 공립미술관인 부산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에 있다. 그 외 사립미술관 몇 곳과 김달진미술연구소에 있다. 미술자료실이 모체기관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어 운영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기관의 한 부서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일반 이용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및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각 기관의 장서현황을 보면, 삼성미술관 리움 46,000권, 서울시립미술관 16,190권, 국립현대미술관 15,180권, 부산시립미술관 6,476권이며, 자료실의 연면적은 국립현대미술관 150평, 대전시립미술관 74평, 부산시립미술관 72평, 서울시립미술관 64평이다. 자료실의 연 이용자수는 서울시립미술관 6,000명, 국립현대미술관 5,280명, 부산시립미술관 3,789명이다. 1년 열람자 수도 일반적으로 내부직원 열람이 외부 열람자보다 훨씬 많다.

각 미술관 자료실의 예산을 보면 국립현대미술관의 2007년 예산은 크게 전시기획 23억6천1백만원, 작품구입 48억1천만원, 인건비 및 시설관리, 교육, 홍보 등이 165억원3천3백만원으로 총 237억5천4백만원이다. 이중 자료구입비가 2천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10% 수준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은 경상사업비 73억원8천9백만원, 기본경비 8억7천5백만원, 인건비 32억9천5백만원으로 총 115억5천9백만원이다. 핵심예산인 경상사업비는 16개 사업을 포함하는데 기획전시 11억8천5백만원, 소장작품 확보 22억원 등이 주요 예산이다. 이중 자료구입비가 1천7백만원으로 전체의 0.14% 수준이다.

각 미술관의 자료구입비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립미술관은 52억원에서 자료구입비는 3백60만원으로 0.07%, 경남도립미술관 22억원에서 자료구입비는 800만원으로 0.36%, 광주시립미술관 30억원에서 자료구입비는 3백만원으로 0.1%, 대전시립미술관 24억원에서 자료구입비는 5백만원으로 0.2%, 부산시립미술관 39억원에서 자료구입비는 1천7백만원으로 0.43%, 전북도립미술관 19억원에서 자료구입비는 3백만원으로 0.16%이다. 국공립미술관의 자료 구입비 예산은 전체 예산의 1% 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1) 국립현대미술관

① 현황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자료실은 1981년 덕수궁 시절에 자료실로 출발하여 1986년 경기도 과천에 신축이전하면서 도서실, 자료실, 시청각실로 분리 운영하다가 시청각실은 자료실로 합쳐졌다. 처음에는 직제상 섭외교육과 소속이었으나 후에 학예연구실 소속으로 바뀌었고 자료실이 도서실로 통합되면서 도서자료실로 확대되었다. 처음 도서자료실이란 명칭을 사용하다가 미술자료실로 변경했다.

이곳에서는 미술 단행본, 연속간행물, 논문집, 시청각자료 이외에 근현대미술가들의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다. 미술가 개인 파일에는 작가별 미술인 카드, 개인전 팸플릿 등을 볼 수 있다. 전시 팸플릿은 입수되면 개인전, 단체전, 기획전 등으로 분류 정리된다.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미술가를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는 작가, 등록하여 관리하는 작가, 자료만 모아놓은 작가로 구별하고 있다. 사이트에서 미술정보 검색은 작품, 작가, 전시회, 도서, 비도서 검색으로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비도서 팸플릿의 DB화를 시작해 ‘목우회’를 검색하니 1988년부터 1972년까지 12종 팸플릿명, 전시일자, 전시형태, 자료형태로 사이트 화면에서 보여주었다. 예전에는 열람자가 복사지를 준비해 와서 자료를 복사했는데 지금은 복사카드를 팔고 있었다. 열람 희망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하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자료실은 약 150평으로 열람좌석수는 24석이다. 소장자료는 도서류 15,180권, 연속간행물 100종 3,200권, 팸플릿 20,012종, 포스터 300여종, 미술인명자료 10,446명을 가지고 있다. 시청각자료는 CD-ROM 300점, DVD 115점, 슬라이드 약 20,000점 등을 가지고 있다. 예술관련 연속간행물의 경우 국내발간 21종, 동양 9종, 서양 48종으로 총 78종 이다. 미술인자료는 미술관 소장품 작가 3,047명, 비소장품 작가 7,419명으로 10,466명이 있다. 신문 미술 기사철은 미술관 기사철이 93권, 일반기사철 745권으로 모두 838권이다. 해외 주요 미술관 파일도 70개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단행본은 MARC프로그램

으로 정리하며 2005년부터 시작한 팸플릿 서지학보 DB 구축을 하고 있다. 금년에도 약 1만건의 팸플릿을 구축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구입, 기증, 교환에 의한 자료 수집의 현황을 보면 2004년 1,574종, 2005년 1,480종, 2006년 1,690종이었다. 미술관 자체발간물은 2004년이 18종, 2005년 22종, 2006년 33종으로 늘어났다. 2007년 자료실의 예산은 자료수집 예산으로 단행본 15,000,000원, 연속간행물 11,100,000원으로 26,100,000원이었다. 자료실의 이용자 수는 연평균 5,280명으로 관내 직원 70%, 타기관 공직자 10%, 민원인 20%로 분류되었다.

② 미술정보검색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정보검색은 작품검색, 작가검색, 전시회검색, 도서검색, 비도서검색 등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검색의 경우에는 작품명, 작가명, 제작년도, 작품유형, 재료기법으로 검색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작품명으로 '묘법'을 입력하니 박서보의 '묘법' 시리즈 7건이 검색되었고, '박서보'를 입력하면 1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다. 결과로 검색된 작품 이미지를 클릭하면 작품을 크게 볼 수 있으며 작품명을 클릭하면 작품의 세부정보, 작가명을 클릭하면 작가의 세부정보를 볼 수 있다.

작가검색의 경우에는 작가명, 아호명, 작가유형(장르별)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작가명 '박서보'를 검색하면 1명이 검색되고, 아호명 '청전'으로 검색하면 청전 이상범의 결과가 검색된다. 작가유형에 한국화가를 체크하면 437건이 검색되었고, 전체 2,373의 작가가 등록되어 검색이 가능하다. 작가소개 페이지는 작가설명, 활동사항, 경력사항, 상훈사항, 작품보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가의 사진도 수록되어있다. 위의 작품검색 화면과 서로 연동되어 작가설명과 작품 이미지를 서로 교차해가며 볼 수 있다.

전시회검색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한 전시회 정보를 검색하는 것으로 전시회명, 전시기간, 전시장소, 설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약 247건의 전시회정보를 수록했고 기간, 장소, 출판작가, 작품수, 주최 및 후원과 더불어 전시회 상세설명, 작품도록도 일부 수록되어 있다.

도서검색은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표제, 저자,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고 발행년도, 자료의 형태 별로 세부 검색이 가능하다. 도서를 검색하면 번호 / 제목 / 저자 / 출판사 / 발행년도 / 청구기호 / 자료있는 곳

/ 구분으로 결과가 보여진다.

비도서 자료 검색에서는 1989년까지 국내에서 개최된 전시회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1990년 이후 전시회 목록과 원문이미지는 앞으로 추가 할 예정이다. 자료구분(개인전, 단체전, 기획전), 자료형태(팸플렛, 엽서, 기타), 자료명, 전시일자로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료명에 '김환기'로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결과가 검색된다.
새봄 아그배 그림 모음전-오지호·김환기·이응로에서 고희훈·박문중까지- (전시명) / 1992.03.10(전시기간) / 갤러리 아그배 (전시장소) / 엽서(자료형태)
'박서보'로 검색을 하면 정창섭·박서보 2인전 / 1987.03.12 / 공간미술관 / 엽서로 나타난다.

③ 국립현대미술관 자료목록집

국립현대미술관은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1989년에 인쇄매체로 발간하였다. 427쪽 분량의 본 목록집은 각 실별 소장자료를 10항으로 정리하였다.

- 제1장 도서실 : 1. 도서, 2. 학위논문, 3. 정기간행물,
- 제2장 자료실 : 4. 미술단체, 5. 국내외 주요전시회 및 기획전, 6. 전시회포스터, 7. 외국미술관, 8. 외국미술인,
- 제3장 시청각실 : 9. 슬라이드, 10. 비디오

④ 미술자료실 주요 운영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명칭)

- ①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 및 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미술관 자료실을 미술관 미술자료실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자료"라 함은 미술관계의 전문도서, 연속간행물, 행정자료, 학위논문집 및 브로슈어, 팸플렛, 포스터, 사진 미술기사, 리프렛 등 인쇄자료와 필름, 슬라이드, 테이프, 음반, 비디오 등 시청각자료, CD-ROM, 온라인 자료 등 전자매체자료, 소장작품과 연관된 작가의 서신, 일기, 문서 등의, 비도서자료 (이하 "자료"라 한다)를 통칭한다.

제3조(미술자료실 구성)

미술자료실은 자료의 수집 및 수집된 자료의 분류, 정리, 분석 및 등록하

여 다음과 같이 도서와 비도서자료로 구분하여 비치한다.

1. 도서자료 : 도서, 연속간행물, 행정자료 및 학위논문집 등
2. 비도서자료 : 전시판플렛, 포스터, 미술인자료, 슬라이드, CD-ROM 등
제1항 이외의 자료

제2장 운영

제4조(휴관일)

미술자료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에 의한 공휴일
2. 기타 미술관장이 지정하는 일자

제5조(열람시간)

미술자료실의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월요일-금요일
평일 9시 - 17시 30분
2. 점심 12시 - 12시 반 휴실

제6조(열람료)

자료의 열람은 무료로 한다.

제7조 (운영방식)

미술자료실의 소장 자료는 도서류는 개가식으로 비도서류는 폐가식으로 절충하여 운영한다.

제8조(열람대상)

자료의 열람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술관직원
2. 공공기관, 문화관련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및 연구단체 근무 직원
3. 기타 학술연구를 위해 미술자료 열람을 필요로 하는 학생 또는 일반인

제9조(열람절차)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을 제시한 후 자료열람 대장에 기록한 후 자유열람한다.

제10조(열람시 준수사항)

① 자료를 열람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실 밖으로 자료 반출금지
2. 열람실내에서의 흡연, 음료수 반입,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

위 금지

3. 기타 관계직원의 제반 지시사항

② 미술관장은 열람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금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대출)

자료의 대출은 미술관 직원에게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공기관, 문화관계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및 연구단체의 대출 또는 복제 요청시 저작권 사항을 검토한 후 미술관장의 승인을 얻어 대출 및 복제 여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대출제한)

다음 각호의 자료는 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포스터
2. 음반
3. 기타 미술관장이 지정하는 자료

제13조 (변상)

① 열람자 또는 대출자가 자료를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의 변상이 불가능한 때에는 열람 또는 대출 당시 시가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

② 열람자 또는 대출자가 자료실의 비품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미술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3장 자료의 수집 · 등록

제14조(자료의 수집)

자료의 수집은 국내외 미술관계 자료를 대상으로 구입, 제작, 교환, 기증 방법에 의한다.

제15조 (미술인자료 작성)

① 1900년 이후 활동한 우리 나라의 미술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활동사항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개별카드를 작성 입력하여 관리한다.

② 전항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술관 소장품작가
2. 기타 당관이 자료 관리 대상자로 특별히 선정하는 작가, 미술사가 및 미술이론가

제16조 (미술인자료 분류)

미술인자료의 분류는 소장작품 분류기준에 준하되 미술이론가 등은 별도로 포함하여 관리한다.

2) 서울시립미술관

① 현황

자료실 면적은 약 64평이고 좌석수 18석, 도서류 16,190권, 연속간행물 50종, 팸플릿 2,260종 등이 있다. 최근 3년간 자료 수집은 2004년 1,202종, 2005년 1,945종, 2006년 1,347종이다. 금년 자료수집 예산은 17,000,000원이다. 자료실 이용자수는 외부 2,400명, 내부 3,600명으로 6,000명으로 국립현대미술관보다 많은 숫자이다. 자료실의 기본은 처음 미술관이 개관 할 때 서울시 서울문화정보센터 문화정보자료실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이관되었다. 자료관리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개발한 자체프로그램을 쓰고 있다. 자료실 열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7시 30분이며 중식시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는 폐실이다.

② 미술정보 검색

서울시립미술관의 미술정보 검색은 크게 소장품검색과 미술관자료검색으로 나뉘어 있다.

소장품검색은 장르별, 작품명, 작가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결과는 대표이미지와 작품명 정도만 소개하고 있고 상세정보는 로그인을 해야만 볼 수가 있다. 로그인 후 제공되는 내용은 크기, 재료, 상세이미지 및 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다.

소장품검색은 한국화, 양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미디어아트, 사진, 설치로 장르 구분을 하고 있다. 각 장르별로 한국화 426점, 양화 735점, 판화 275점, 조각 164점, 공예 92점, 서예 20점, 미디어아트 10점, 사진 273점, 설치 7점을 검색할 수 있다. 한국화 부분의 경우에는 천경자 화백의 작품 90여점과 박노수 화백의 작품 58점을 포함하고 있다.

미술관자료검색은 총 16,277건의 자료를 유형 및 항목에 따라 검색할 수 있다. 자료 유형이란 자료의 주제 분야를 말하는 것으로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등으로 구분한다. 검색 항목은 자료명, 제작자·저자명, 제작자(출판사), 제작년도(출판년도), ISBN으로 구분해 놓았다. 도서를 검색하면 자료명 / 저자명(번역자명) / 출판사 / 출판년도 로 결과가

보여진다. 예술분야의 도서는 9,665건으로 이는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체육 등 예술의 다른 장르 및 미술분야의 정기간행물과 외국서적도 포함하고 있다.

3) 삼성미술관 리움

① 현황

삼성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자료실은 용인 호암미술관, 중앙일보사 20층 삼성문화재단 삼성미술관 자료실, 서울 종로구 운니동 한국미술기록보존소 등 세 곳에 흩어져 운영되어 왔다. 2004년 삼성미술관 리움이 한남동에 새로 개관하면서 한국미술기록보존소가 용인으로 이전했고, 삼성미술관 리움 도서실은 리움 2층에 아동교육문화센터 옆에 자리잡았다. 리움 도서실의 보유자료는 도서류 46,000권, 정기간행물 18,800종, 비도서자료 11,000건으로 파악된다. 좁은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한 모빌렉이 설치되었고 포스터함이 있다. 잡지가에 고미술, 현대미술 관련 잡지, 재단 발간물 등을 비치했다. 그러나 삼성계열사 직원 이외 일반인에게 비공개되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

삼성미술관 부설로 운영되는 한국미술기록보존소(Archives of Korean Art)는 최초로 한국 근현대미술의 기록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할 목적으로 1999년 개소하여 2001년 일반 공개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있었는데 2005년 용인 호암미술관으로 이전했으며 1층 기록물, 지하층은 도서, 전시 팸플릿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있다. 소장자료는 도서류 6,680권, 정기간행물 4,570권, 비도서자료 85,440건 등이 있다.

이곳의 자료는 미술평론가 이구열 선생님이 평생 모은 자료를 1988년 12월 기증하고, 2006년까지 개인 및 기관의 190여명이 자료를 기증하였다. 적극적인 수집방식으로 구술사(口述史, Oral History) 프로젝트를 도입했는데, 구술방식의 역사기록으로 개인의 전기(傳記)와 사건 및 주제, 두 방향으로 기록하고 있다. 현재 원로 미술인 40여명의 채록을 진행하였다. 현재 『한국미술기록보존소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는데 2006년 5집까지 발간했다. 자료실의 단행본은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글립스’라는 프로그램으로 검색하여 자료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단행본의 분류는 KDC(한국십진분류표)가 아닌 DDC(듀이십진분류법) 분류를 사용한다. 실제로 ‘백양회’를 주제어로 검색해보니 많은 자료가 떠올랐으며 기증자도 표기되어 있었다. 그리고 백양회라는 박스 속에는 팸플릿, 관련기사들이 있었고 사이에는 중성지가 끼어 있어 자료를 보호하고 있었다. 열람자는 전화예약을 해야하며 화요일부터 금요일사이 오전10시에서 오후4시까지 공개한다.

② 미술정보 검색

삼성미술관 리움 도서관은 내부직원을 위한 것이므로 따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한국미술기록보존소의 일부자료가 온라인상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크게 과거전시기록, 구술사 자료, 자료기증자의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과거전시기록은 약 200여건의 목록 및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며 <한국미술기록보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전시도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공범위는 과거 호암미술관, 호암갤러리, 로댕갤러리에서 개최되었던 전시와 중앙미술대전 등의 기록들이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등록된 <탈속의 코미디:박이소 유작전>을 클릭해보면 기간, 장소, 주최, 기획, 도록의 글 등이 수록되어 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인 1978년 제1회 중앙미술대전의 경우 기간, 장소, 주최, 운영위원, 심사위원, 수상작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검색은 장소, 제목, 내용으로 가능하며, ‘로댕’으로 검색하면 로댕갤러리에서 진행된 전시의 리스트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구술사자료는 <한국미술기록보존소>에서 2000년부터 진행해 온 구술사(口述史) 프로그램의 결과물이다. 2006년까지 40여 명의 원로작가와 평론가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2003년부터는 수집된 구술사 자료를 정리하여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2003년 발행한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1호에 수록된 「해방 이전 일본에 유학한 미술인들 I」의 내용을 PDF로 제공하고 있다.

자료기증자의 명단은 한글자모순으로 정리되어 있고 이름을 클릭하면 기증자료의 내용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권영우’를 클릭해보면 기증시기는 2000년, 2002년 2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기증자료의 내용은 단행본 1건, 비도서 자료 229건(신문기사, 잡지기사, 전시카탈로그, 방명록, 편지, 상장 등), 시청각 자료 903건(슬라이드필름 514건, 사진 191건, 디지털이미지 233건, 음성·동영상 자료 10건) 등으로 상세하게 기록했다. 현재 21명의 기증자 자료를 볼 수 있지만,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자모순으로 일일이 페이지를 찾아봐야 한다.

③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Archives of Korean Art Journal)을 본격적인 정기간행물로 2003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1호(2003년) : 해방이전 일본에 유학한 미술인들(1), 해방이후 한국화 화단의 변화(1), 2호(2003년) : 해방이전 일본

에 유학한 미술인(2), 3호(2004년) : 해방이전 일본에 유학한 미술인(3, 4), 해방 이후 미술계 동향, 4호(2005년) : 해방이후 조각계 동향(1), 5호(2006년) : 해방 이후 조각계 동향(2) 등이 주요 내용이다.

④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이용안내

○ 열람자격

-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관련종사자
- 위 해당이 없는 경우 동 자료실의 사전승인을 득한 자

○ 열람조건

- 폐가식
- 사전 전화예약 (일시와 열람내용)
- 인원제한 : 열람일 예약상황에 따라 결정

○ 열람시간 : 주 4회(화~금) 오전 10:00 ~ 오후 4:00

○ 기록물 색인 및 검색환경

- GLIMS / 엑셀 / 기록자료목록집 / 자료집

○ 열람규정

- 소장기록물은 영구보존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열람용으로 활용됨
- 소장기록물의 보존상태에 따라 열람불가일 수 있음
- 구술기록물 녹음 / 녹화테이프 청취 및 시청은 별도기준에 의해 허용됨
- 기증자의 요청 또는 자료실 자체 판단에 따라 기록물 열람 제한 가능

○ 복사규정

- 소장기록물은 영구보존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복사를 금함
- 단, 단행본/정간물/일간지기사/전시카탈로그는 “1975년 이후 출판물” 로써 “보존상태가 양호한 경우” 부분복사 허용

허용한도는 1책 기준 3분의 1, 1일 복사량은 총 50매 한정

- 복사료 : A4용지 1매 W50, A3용지 1매 W100

○ 사진이미지 이용규정

- 소장기록물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이용자 개별촬영이 금지됨
- 사진이미지 이용시는 별도의 ‘슬라이드필름 대여규정’에 따름

○ 기록물의 인용

- 기록물 인용시 출처표기를 조건으로 함
 - 동 자료실은 아래와 같이 출처표기할 것을 기증자와 약속하고 있음
- 예) 자료제공 : 삼성미술관 Leeum 한국미술기록보존소 (기증자료)

4) 김달진미술연구소

김달진미술연구소는 2001년 연말에 개소하여 미술정보지 서울아트가이드와 www.daljin.com을 통해 미술정보를 제공해왔다. 미술자료전문가 김달진씨는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과 가나화랑 자료실장으로 20여년 근무했다. 미술자료실은 2007년 5월부터 일반에게 공개하기 시작했다. 소장자료는 도서류 5,000권, 연속간행물로 미술문화잡지 80여종 2,500여권, 학회지 30여종 250여권, 미술가 개인파일 280여명 등이 있다.(‘<표2> 김달진미술자료실 보유자료 현황’ 참조)

이외 다량의 팸플릿, 일간지, 주간지, 신문기사의 원본을 비치하고, 자료관리 프로그램은 (주)포스비브테크의 책꽂이를 사용한다. 현재 도서, 작가화집, 도록, 팸플릿, 시청각자료를 계속 정리하여 전산화하고 있다. 열람은 사전예약제로 월, 수,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표2> 김달진미술자료실 보유자료 현황

종류	수량	비고
단행본 및 작가화집	6,000여권	『오지호, 김주경 2인 화집』, 1938년 『문화사개요』, 1956년 『Modern French Painting』, 1956년
정기간행물	100여종 2,500여권	『조형예술』, 1946년 『신미술』, 1950년대 1940~현재까지 잡지 등 소장
미술학회지	30여종 200여권	조형교육, 한국근대미술사학, 미술사논단 등
논문	150여권	미술 석사, 박사 논문
팸플릿	다량	1929년 『제8회 선전진열품목록』 팸플릿 1941년 『이왕가미술관 요람』 리플릿 등
신문자료	1970-80년대 주요기사 1996-현재 일간지미술기사	현재 서울에서 발행되는 조간 13종, 석간 2종
작가개인파일	280여권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이상범, 백남준 등 주요 근대작가 작품도판, 신문 잡지 기사

4. 미술아카이브 설립의 흔적

1) 연희조형관

그동안 미술자료실을 표방한 곳이 몇 곳에 설립되었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조각가 김영중씨가 1985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세운 연희조형관안에 1988년 7월 개인 자료와 이시현, 유홍준, 전정수 씨 등 미술계 인사의 기증으로 카달로그 15,000여종, 슬라이드 3,000점, 논문 300편, 비디오 400여종을 비치했다. (중앙경제신문 1989.5.30) 이곳에서 연희조형관 자료목록집을 1988년, 1989년, 1991년, 1993년에 4회 발행했다. 이 목록집은 연희조형관 미술자료실에 소장된 도서, 논문, 슬라이드, 비디오, 정기간행물, 카달로그를 구분해 수록했다. 카달로그는 장르별로 나누어 전시회 연도 및 일자순으로 정리해 놓았는데 카달로그의 전목록을 자료목록집에 수록한 것은 드문 예이다.

2) 한권미술자료관

또한 큐레이터 활동을 하던 이한권씨가 1994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신탁은행 건물 5층(현재 신 상갤러리)에 한권미술자료관을 열었다. 지난 70년부터 현재까지 열렸던 각종 전시회 카달로그의 90%에 해당하는 30,000여권, 국내외 미술도서 화집 3,000여권, 슬라이드 2,000점, 논문집 200여권, 미술정보지 500여권 등 소장자료가 방대했다. (서울신문 1994. 3.16) 이씨는 전시기획, 화집 편집 등 일을 했고 그 후 현재의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자리로 자료관을 옮겼지만 중단되었다.

3) 연곡재아트컨설팅

무등방갤러리, 조형갤러리에서 일했던 고여송씨가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연곡재아트컨설팅을 설립하여 한국근현대미술자료를 수집, 전산화 및 정보화를 내세우며 『1995 한국현대미술작가들』 발간을 홍보했다.(미술세계 1995, 4 광고). 그 후 연곡재아트컨설팅은 인력도 보강해 서대문구 홍은동으로 이전을 했는데 별다른 활동을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다.

4) 미술문화정보센터 설립연구

1995년 미술의 해에 '95미술의 해 조직위원회와 한국정보관리학회에서 『미술문화정보센터 설립연구』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한국미술의 장기적 발전과 문화정보력의 제고를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미술문화정보센터 연구작업을 완료하고 개념과 기본구상, 외국의 실태, 향후 추진계획을 담았다. 이 연구보고서는 1. 서론, 2. 미술문화정보센터 설립의 의의, 3. 미술문화정보의 내용과 최근동향,

4. 미술문화정보센터의 특성, 5. 정보시스템의 개발, 6. 해외 유사기관 건립 및 운영사례조사, 7. 건립 및 운영연구, 8.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건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연구보고서로 끝나고 말았다.

5) 한국현대미술기록보존소

한국현대미술기록보존소(Archives of Korean Contemporary Art)는 뜻있는 작가, 아키비스트, 비평가, 미술사가에 의해 2003년 설립되었다. 기록자료는 미술문화의 연구, 향수를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이며, 미래를 위한 과거와 현재의 수호자-사료(史料)로써 사회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미술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술관련 기록자료의 수집과 연구, 보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통해 출발하게 되었다.

일차적으로 동시대 작가기록자료를 수집, 분류,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제공하고자 하고, 정보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시대 기록자료를 생성단계부터 디지털화하여 정보로 가공함으로써, 기록자료의 수집과 보존만큼이나 중요한 자료활용에 중점을 두었다. 향후 미술기록자료 보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일깨우고, 정교한 분류체계와 시소러스(정보검색용 어휘표)를 연구하고, 합리적인 보존시스템을 마련하며, 다양한 미디어형태의 기록자료를 수집하고, 사회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계획하에 의욕적으로 시작했다. 이 기관은 활동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사이트(artarchives.or.kr)에서 그 명맥만 남아있다.

6) 기타

최근들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술구술사 채록사업이 좋은 성과를 나타냈고 인사미술공간에서 젊은작가들의 현대미술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아카이브 활동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 소마미술관안에 설립된 드로잉센터는 드로잉 전문 자료실은 표방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김달진미술연구소는 1차적인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 용인의 한국미술기록보존소를 찾기는 교통이 불편 한 점을 감안해 일주일에 3일을 예약제로 공개하고 있다.

5. 한국 미술자료실의 문제점

실제 각 미술자료실을 방문하거나 설문조사한 결과는 첫째, 한 국가의 미술기록자료의 관리기관의 숫자, 소장자료의 질과 내용이 모두 극히 빈약하다. 둘째, 기록관리의 기초인 목록화 DB시스템을 도입한 곳의 부족하다. 셋째, 홈페이지에서 목록 검색을 제공하는 기관의 미비하며 대부분 도서에 한정되고 도서관과 차별된 원본기록자료의 특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

술자료실의 문제점은 크게 인식부족, 인력부족, 예산의 부족을 들 수가 있겠다.

첫째, 미술자료에 대한 인식의 부족

동시대의 예술 현장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집대성하는 작업은 예술 생산물이 가지는 문화적인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확산하는 일이다. 예술현장에서 생산되는 콘텐츠와 각종 기록물은 그 자체로써 예술현장의 풍경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충실한 사료로써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창작과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써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국가적인 문화자산이다. 미술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술정보의 체계적인 조직과 분류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미술가들은 선대의 작품과 자료를 공부하고 채득한 후 그를 뛰어넘는 작품 활동을 해야 할 것이며 미술사가들은 미술사와 관련된 여러 문헌들을 비교분석해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미술가별 연구 뿐 아니라 그들의 위작, 모사, 표절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미술가별 카탈로그 레조네의 작성 및 저작권법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미술자료실의 운영은 단순히 미술과 관련된 도서를 볼 수 있는 도서관이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술자료실은 미술과 관련된 모든 문헌과 기록들을 수집해 정확한 정보로 재생산해내는 곳이어야 한다. 미술저작권 및 미술품 감정, 미술가·미술사에 대한 재해석 및 평가의 시작은 자료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한 기관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미술자료를 정리하고 보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기관별로 특성화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한다. 또한 특성화된 각 기관의 미술자료실을 통합관리 및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본격적인 미술아카이브 설립도 필요하다.

둘째, 미술자료실 인력의 부족

대부분 미술관에서 소규모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기관의 본질적인 업무가 아닌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관련 예산이나 인력지원이 인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술자료실의 업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운영해 나갈 수 인력이 부족하다. 미술자료실이란 특수한 분야의 전문도서관이기 때문에 문헌정보 및 기록관리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미술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현재 미술자료실의 직원수는 대부분 학예직, 사서직, 한명이 담당하거나, 다른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부수적인 업무로 자료실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에서는 부족한 인력난을 비정규직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해소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미술자료실의 업무를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자료센터로 인식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정기간행물 구독, 업무용 신청도서

구입, 신간서적 비치 등에만 머무르는 미술자료실에서 벗어나 해당 기관의 전시 및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전문자료실로 만들어 가야 한다. 미술자료실은 학예연구원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하며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전시 및 행사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일반인들이 열람 할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미술계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 인력의 잦은 교체도 큰 문제가 된다. 1~2년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배치되는 조직이라면 자료담당자가 미술전문사서로 성장해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미술과 정보학을 접목시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교육과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예산의 부족

미술자료의 수집과 관리 보존은 기본적으로 비시장성 특성을 갖는다. 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위해서 많은 비용이 소모되지만 적절한 규모의 시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로 운영될 수 없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통해서 단시일 내에 자료를 수집한 개인이나 단체가 취할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서 조사한 각 미술관의 자료실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자료구입예산을 밝히지 않은 곳도 많았고 5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곳도 있었다. 1년 자료수집예산은 국립현대미술관 2,600만 원, 서울시립미술관 1,700만 원이었으며 대다수 1,000만 원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미술자료는 일반 도서관과 달리 자료구입시 소요되는 비용이 많은 편이다. 인쇄 상태가 좋은 작품집 및 사진집 등은 한권에 10만원을 넘기는 것도 있어서 만약 500만원의 예산으로 10만원짜리 작품집 50권을 사면 1년 자료구입비가 바닥이 나게 될 것이다. 예산 부족은 곧 소장자료 부족으로 연결되어 열람자가 요구하는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예산은 위에서 살펴보았던 인력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인력을 넉넉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술자료실에 도움이 되는 인력의 확충, 중요한 미술자료의 구입 및 수집, 이용자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열람서비스의 마련을 위해서는 예산배정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기관에서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자료구입보다는 조금이라도 성과가 남는 쪽에 지원을 하고 예산 배정을 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해 중요한 미술자료의 구입과 미술자료실 운영에 투자를 해야만 한다.

6. 미술아카이브 설립의 필요성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니, 정보화 시대이니 라는 표현은 이미 식상하게 된지 오래이며, 이제 실천이 남았다. 예술의 보존과 계승은 국가의 전략이다. 국가차원에서 문화의 근간이 되는 자료, 역사의 사료가 되는 기록의 보존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자각되어야 한다. 미술계가 발전하고, 미술시장이 커지고, 해외 진출의 기회가 많아졌지만 기본적인 자료, 통계가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미술자료실, 미술정보센터, 미술아카이브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첫째, 중요한 미술작품과 자료는 국가의 유산이고 공공의 기록물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산의 지원으로 각종 자료 구입, 전문 직원의 증원은 필수적이다. 중요한 우리나라 근대미술 작품은 문화재에 등록될 가치 있는 것들이다. 훌륭한 작품 한 점이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발생시키는 부가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들 자료의 중요성은 새삼스러울 수 없는 사안이다. 이를 위해 자료들을 목록화하고 디지털화하는데 지원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소규모의 단위시설이나 부서로는 쉽사리 수행할 수 없는 자료관리 표준화 방안의 연구, 정보시스템의 개발과 보급, 자료의 보다 체계적인 보존을 위한 지도와 지원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전담기구의 설치 는 우리 사회의 미술문화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시작이며,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우리 예술사를 되살려내는 길이다. 이를 위해 미술자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학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특수한 미술분야 자료정리는 연구와 협의를 통해 발전적으로 개선해나도록 한다. 미술도서실 사서, 아키비스트, 큐레이터,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미술의 정보 네트워크화, 미술정보센터의 설립이 한국미술계의 발전을 위하여 시급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1. '95 미술의 해 조직위원회, 『미술문화정보센터 설립연구』, 1995
2.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과 자료』, 1999
3. 김달진, 『국내미술자료 실태와 관리개선방안 연구』, 중앙대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1999
4. 한국미술기록보존소,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1-5호, 2003-2006
5.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관광부, 『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 활용 방안연구』, 2007

* 참고: 달진닷컴 사이트 맵

NEWS	전시	달진스페셜	컬처클럽	평론가클럽
Today' Top 미술계 동정 공모전 미술잡지 새로나온 미술도서 오늘의 문화소사	이달의 추천전시 오늘의 전시 화제의 전시 해외 전시 평론가 전시평 갤러리정보	나의 발언 다시읽기 예술산책 문화칼럼 예술이야기 파리산책	글이있는 그림 얼굴있는 풍경 문화 에세이 이경성 칼럼 FANLUV의 미술기행 포토카페 탐방	오광수 고충환 김영호 김종근 박영택 윤진섭 이선영 이영철 하계훈
미술자료실	아트서비스	커뮤니티	김달진미술연구소	
색인자료 인명사전 소장자료 자료참고 이한점의 자료 미술사이트	서울아트가이드 주소록 스티커 자료열람서비스	알림마당 게시판 독자투고	Overview 사업안내 파트너쉽 김달진 프로필 언론보도 원고모음	

- 사설 미술아카이브 운영 및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

김철호 (미술사가)

사설 미술아카이브 운영 및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

김철효 (미술사가)

1. 아카이브 사업의 비영리적 특성

순수 비영리로 운영되는 사립기관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술아카이브를 포함하여 ‘아카이브’의 개념은 ‘영구보존할 만큼 가치 있는 기록물’ 또는 ‘그 기록물을 보존 관리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것은 즉 순수한 의미의 ‘아카이브’ 운영으로는 영리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가치 있는 기록물 수집 비용으로부터 보존을 위한 장치, 이용자들의 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의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지출을 생각할 때 아카이브사업 자체만으로 수익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해외 미술아카이브 사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미술아카이브는 거의 국공립 기관에 한정되어 있고(프랑스의 국립미술사연구소와 퐁피두센타 자료관, 영국의 빅토리아앤앨버트미술관아카이브, 일본의 동경문화재연구소 등), 대표적인 사립 기관인 미국 스미소니언 연구소군의 미국미술아카이브 또한 기관의 설립기금을 기반으로 하여 비영리 운영이 가능한 준국립기관 수준이었다. 사립의 경우는 미술관이나 기타 관련기관에서 모기관의 관련기록을 관리하는 개념의 소규모 아카이브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국내에서 아카이브 개념의 미술자료실은 국공립 미술관에서조차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 하겠고 그 외 몇몇 개인 및 사설 아카이브들이 대동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거의 존재가 없다.(연희조형관 등). 그것은 설립을 위한 기본비용과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경비 마련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최근에 와서 인터넷환경을 기반으로 미술정보와 관련된 사업을 시작한 ‘김달진미술연구소’나 ‘네오룩닷컴’ 같은 사설기구들이 수익모델을 계속 연구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그것은 일단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영리로 운영되는 순수한 개념의 미술아카이브 사업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영리사업을 동반할 경우 아카이브 개념은 상대적으로 축소 또는 변질될 위험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들과는 별도로 ‘자국의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국비로 운영되는 국가차원의 미술아카이브를 설립 운영해야 할 것이며, 그 외 국공사립 미술관(박물관) 또는 관련기관 소속의 소규모 미술아카이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 방안 및 시스템을 마련, 기타 유형/무형의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민간 미술아카이브 견학 사례

국내 한 사립기관의 부설로 운영되는 미술아카이브를 견학하고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동 아카이브에서 관리하는 소장자료는 모기관의 운영지침에 종속되어 모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었다. 소장자료의 내용은 <미술도서> <기관기록자료> <한국미술기록자료>의 3개 개념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되며 그 가운데 ‘한국미술기록자료’를 보존 관리하는 아카이브는 외부 연구자들에게 공개되고 있었다. 동 아카이브의 설립 동기는 근현대 한국의 미술 작품 연구 및 미술사 기술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문헌 및 기타 관련자료들이 소실되어 왔고 그나마 현존하는 자료들도 여기저기 산재해있어 활용이 어렵다는 인식에서였다고 한다. 관련 자료의 소장자들을 섭외한 결과 한 소장자의 전폭적인 기증으로 설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하며 그 후 지속적인 수집사업을 벌여 소장량을 확장하면서 보존 작업과 정리체계 정비 및 공개, 활용작업에 힘쓰고 있는 것 같다.

2.1. 수집 및 생산 작업

- 수증 : 작가, 작가유족 또는 미술계 인사, 기관들로부터 소장자료를 기증받음
- 구입 : 교서점 또는 경매 사이트 통해 구입
- 생산 :
 - 1) 시청각자료 - 작품, 작가, 전시, 문화재 또는 관련 기록자료, 의미 있는 장소 등 촬영하여 생산하는 동영상, 스틸사진, 녹음자료 기타
 - 2) 구술사자료 - 생애사 또는 사건 주제의 구술을 통한 관련자료(녹취문, 동영상, 녹음테이프 기타)

2.2. 정리체계 정비, 목록화 작업

- 입수과정의 정비 : 입수자료 기재 체계(등록번호 기타)
- 분류체계 정비, 목록 전산DB화 작업
 - 1) 입수/출처 정보를 기초로 한 대/중/소 분류 매뉴얼 정비
 - 2) 목록 전산DB화 매뉴얼 정비
 - 3) 목록 전산DB화 작업 실제 (도서목록DB체계를 기록자료목록DB로 변형하여 사용)
- 미술잡지 기사색인DB화 일부

2.3. 보존 작업

- 향온항습 및 해충제거(자료 훈증소독 등) 환경 정비
- 인쇄자료, 필사본, 사진자료 보존위한 중성박스, 중성비닐, 중성봉투 기타 기재 설비
- 손상자료 복원 위한 간단한 설비 : 곰팡이 및 얼룩 제거 용액, 한지, 중성풀, 증류수 기타

2.4. 활용 서비스

- 검색, 열람 및 복사 서비스
- 자료집/ 녹취문집 발간
- 인터넷 서비스 : 준비 중

2.5. 성과와 한계

작은 규모이지만 해외 사례를 모델로 하여 전문 아카이브의 개념 및 체계를 세워보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자료의 수집은 수증과 구입 외에 구술사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수집방법을 정착시켰고 수집된 기록자료를 토대로 자료집이나 녹취문집 등을 발간하는 일로 얼마간 성과를 내고 있었다. 그 외 분류체계 정비나 열람 서비스 까지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결국 한계는 기록자료목록의 DB화 작업, 국내에 표준화된 기록자료목록DB시스템이 없어 도서목록DB를 변형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3. 사설 아카이브를 위한 국가 지원

아르코 시각예술위원회로부터 ‘사설 아카이브를 위해 아르코나 문광부에서 어떠한 예술정책과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발제하기를 요청받았다. 이를 말하기 앞서 지난 해 문광부에 제출한 「2007 예술정책연구보고서-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 활용방안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동 프로젝트는 2006년 후반 문광부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문화예술계의 6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일이었고 당시 한국 근현대 역사상 최초로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이슈화한 큰 사건이었다. 프로젝트의 책임연구원은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이호신 선생이었고 시각예술 쪽은 김달진 선생과 본인이 공동연구원이었다. 보고서에는 지면관계로 우리의 연구성과가 꼼꼼하게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6개월 이상을 투자했던 프로젝트의 결과였고 보고서의 핵심은 국내 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 활용을 위해서 국립예술아카이브(가칭)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었다. 즉 국가차원의 대규모 ‘국립예술아카이브’가 중심이 되어 국내의 여타 국공사립 예술아카이브의 연계 및 협력을 주도한다는 것이 그 요점이었고 실제 설립을 위한 세부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만일 오늘의 논의를 그 보고서 검토작업에서 시작했다면 어떠했을까? 논의의 효율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국공립 예술아카이브의 연계 및 협력 방안’이 한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중심기관으로서 국립예술아카이브(가칭)가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4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다.

- 1) 자료수집 등의 분담체제로 효율화 도모를 위해 기관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한다.
- 2) 소장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 및 이를 적용한 자료관리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한다.
- 3) 자료의 공동활용과 서비스체제 구축으로 이용자서비스를 확장한다. 이를 위해 소장자료의 상호대차와 원문복사서비스 등, 그리고 디지털 저작물의 공동 구축과 활용을 도모한다.
- 4) 인력 전문화를 위한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보고서는 또한 ‘국립예술아카이브’ 설립을 위한 법적적인 문제까지도 고찰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발제를 요청한 아르코에서, 지금 현재 법적 아래에서 사설아

카이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이다. 위의 4개 항목을 지원 하는 일이 가능한가? 해결방향은 3가지이다.

첫째,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실행하면 된다.

둘째, 가능하지 않다면, 아르코의 조직체계가 문제라면 ‘국립예술아카이브’ 설립 을 포함하여 좀 더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금의 현실이(정치계와 문화계를 포함하여) 그러한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대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관련기구들의 협의체 구성을 주도한다든가 하는 방향이다.

● 온라인 아카이브의 쓸모와 바람-네오룩닷컴을 중심으로

최금수 (이미지올로지연구소장)

온라인 아카이브의 쓸모와 바람

네오룩닷컴 이미지올로지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단상들¹⁾

최금수(이미지올로지연구소장)²⁾

1. 시작 ● 80년대라는 지울 수 없는 기억들이 있다. 뽀족한 펜으로 기름종이를 긁어 틀에 걸고 시커먼 잉크를 묻힌 로울러를 문질렀었다. 그리고 얼마 후 복사에 복사를 거듭하여 독해 불가능할 정도로 깨어진 문건들을 한자한자 복원시키며 세상을 읽었다.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시끄럽게 돌아가는 마스터 인쇄기와 전동타자기 덕분에 예전에 비해 훨씬 손쉬운 방식의 프로파젠더가 진행되었다. 이 즈음 미술운동에서는 목판화, 만화, 걸개그림들이 그려졌으며, 좀더 여유가 있었던 집단에서는 8mm영화와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들 모두 팩시밀리, 캠코더 등이 나오기 한참 전의 일들이다. ● 울컬러 옵셋 인쇄물들이 서점을 장식하고 워드프로세서라는 이상한 기계가 전동타자기를 몰아내고 메모리칩이라는 시커먼 조각이 그 의미를 키워갈 즈음에 갑자기 시커먼 화면에 초록색 불빛이 반짝이는 인류가 만든 가장 진보적인 컴퓨터 XT가 시판되었다. 위아래로 커다란 디스켓을 머금고 있는 XT 앞에 앉아 DIR을 치면서 창밖에서 허영게 터져 들어오는 최루탄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곧 모니터는 알록달록 해졌으며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낯설은 살색이 수많은 눈들을 충혈시켰다.

2. 소박한 프로파젠더 ● 80년대 걸개그림이 파생시킨 만화와 판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던 시절 걸개 하나를 그리면 적어도 그 그림을 10만에서 100만이 보았다. 그리고 복수성에 기반한 만화와 판화도 메아리처럼 퍼져나갔다. 성급한 이들은 이로부터 매체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 갔으며, 출판미술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아직 사진은 보도 또는 증거의 기능으로만 여겨졌었고 영화 또한 닫힌 문을 열어제치기 위해 여기저기서 힘을 모으고 있었다. ● 기억으로 팩시밀리를 이용한 아티스트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던 시절 일렉트로닉이라는 아주 작은 카페에서 AT컴퓨터에 모뎀을 달아 채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홀로그램으

1) 이 글은 네오룩닷컴 온라인 아카이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995년부터 2007년 사이에 타 매체에 기고했던 원고들을 조합한 것입니다.

2) animal@neolook.com

로 희한하게 번쩍이는 레이저비전 판으로부터 아이젠슈테인과 핑크플로이드를 즐길 수 있었다. 올림픽이 열린던 해에도 이 영화들은 이데올로기 콤플렉스로 인해 숨어서 볼 수밖에 없는 작품들이었다.

3. 모뎀의 발견 ● 그것은 거칠은 상상을 발동시켰다. 그래서 조악하지만 터보 XT에 모뎀과 핸드스캐너를 달아 좀더 강력한 프로파젠더를 꿈꾸게 되었다. 사회 사진연구소의 진한 사진들을 스캔 받고 죽은이들을 추모하는 듯한 김정리본이 돌아가는 9핀짜리 도트프린터로 시끄럽게 여러 장을 찍어보았다. 그리고 파스텔로 약간의 색을 입혀 교정과 길거리에 붙였었던 적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내용보다는 형식을 신기해하며 이미지를 소비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내용만큼이나 거칠었던 판화가 식상해진 사람들은 무언가 섬세한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다. ● 데이터 전송. 동질의 포스터가 모뎀과 프린터를 이용하여 여러 곳에서 동시에 제작되며 같은 시간에 벽에 부착될 수 있다는 믿음은 굉장한 것이었다. 물론 이를 현실화시킬 무렵 80년대의 거친 호흡은 서서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인터넷 세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4. 남한의 시각 이미지 관련 웹 사이트 ● 80년대와 그리 다를 바 없지만 그래도 확연히 달랐었던 90년대. 남한에서도 기존의 방법으로 탈출구를 찾지 못했던 시각 이미지 생산자들이 웹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코앞의 새천년. 서툴고 조악한 시스템을 이용한 웹이었지만 그래도 뜨거운 열정과 보여줄 것이 무궁무진했었던 과거의 사람들은 일종의 의무감을 가지고 웹을 개척하였다. 아쉽게도 그때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사이트들은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서버의 한 귀퉁이에 방치되거나 도메인을 잃어버린 채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다. 사실상 본격적으로 남한 시각 이미지에서 웹문화가 시작되었던 시기는 1998년 이후이다. '새로운 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부르며 인터넷을 모르던 '야만인' 취급을 하던 당시 분위기는 '정보화 사회' 열풍을 일으켰으며 덩달아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각종 시각 이미지 공급을 재촉하였다. 때마침 외환위기를 겪으며 이를 타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이버 세계를 정복하여 최고의 강자가 되겠다는 다짐들이 닷컴으로 집중되었고 결국 뜨거운 웹러쉬 web-rush가 조장되었다. 하지만 10여년전부터 지금까지 남한 시각 이미지 생산에 있어서 이렇다할 이론적인 이슈가 부재한 상태였고 축적된 논의들도 척박했던 터라 당시의 웹은 오히려 절반 번지르한 눈요깃거리로 치부되었던 감이 없지 않았다.

5. 새천년 ●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웹은 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우선 확연한 변화로 대기업과 화상들이 웹에 들어와 장사를 할 속셈으로 수백억원

의 자본을 투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저 user들 또한 나름의 생각으로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물론 시각 이미지 생산의 관점에서 보자면 무엇보다도 온라인으로만 활동하는 웹아티스트의 숫자가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변화로 꼽을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현실의 여건은 아직 눈앞에 보이는 오프라인의 돈과 권력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꼭 미술계 자본이 아니더라도 대기업 또는 개인 출자자들이 뚝뚝한 시각 이미지 관련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유무명 작가들의 무수히 많은 작품들을 스캔 받았으며, 이 작품들을 유저들에게 쉽게 설명해 줄 필자들과 사이트를 예쁘게 꾸며줄 웹디자이너를 구하러 다녔다.

6. 상상력 ● 머릿속을 떠도는 복잡한 생각들은 어떤 계기를 찾고 있다. 그리고 되살아나는 기억들은 과거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 과거로서 미래를 호출할 수 있는 방법. 구속된 사고와 현실의 제약을 뚫고 요상한 생각들이 힘을 얻기 시작한다. 더 넓은 폭과 얹지 않은 깊이를 원한다. 결국 상상은 현실에 드리워진 저항의 그늘 끝에 위치한다.

7. 감각과 정보 그리고 속도와 방향 ● 예민한 감각은 정보의 양을 스스로 제어한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은 오히려 감각을 흐리게 만드는 까닭이다. 하지만 새천년 남한은 '사이버월드 리더'를 자초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대국'이 되었다. 무섭도록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그 방향을 묻는다는 것이 어색할 정도로 다들 자신의 속도만을 자랑할 뿐이다. ● 감각이란 시각 이미지 생산에 있어 형식에 더 어울리는 말이다. 그리고 굳이 나누자면 정보는 내용에 더 가깝다. 좀더 비약하자면 감각과 정보는 결국 내용과 형식을 일컫는 것인데 그 방향이 어디가 되었건 간에 속도에 있어서 그 근원이 되는 내용과 형식은 따져야겠다는 생각이다. 어차피 시각이 감각의 일종이기에 감각만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정보 없는 감각이란 너무나 말초적이기에 유행보다 더 빨리 사라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다시 어떤 정보인가를 따져야 한다. 물론 정보 또한 그것을 전달하려할 때 일정의 시기와 형식을 필요로 한다. 결국 방향의 키를 정보가 쥐고 있으며 그 속도는 감각에 의해 제어되는 셈이다. ● 방향의 시대였던 80년대에는 정보를 생각했었다. 속도의 시대였던 90년대는 감각을 선택했다. 아마 감각이 손쉽게 모든 것을 새롭게 보이게끔 하기에는 더 적합했었을 것이다. 정보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데 그 껍데기인 감각만 다르게 포장하면 과거에 비해 무언가 바뀐 것처럼 눈속임할 수 있겠다는 알뜰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는 실제로 정보와 감각, 현실과 상상 등 모든 것의 변화를 원한다. 그것이 대량으로 살포되고 접촉되는 매체의 힘이던 남한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능

력 변화에 따른 것이던 말이다.

8. 현실의 배반 ● 쏟아지는 매체에 담겨진 이미지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는다. 일단 이미지는 현실을 배반할 수 있고, 실제 권력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물망을 형성하는데 촉매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 고민하자면 이미지는 현실의 권력보다도 더 권력적인 부정의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실보다도 더 현실적인 것처럼 꾸며진 이미지는 그 자체로서 실제 현실을 배반하게 만들고 전혀 엉뚱한 이미지의 현실로 우리를 인도한다. ● 불행히도 남한 현실 이미지의 폭은 그리 넓지가 못하다. 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공연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현실 이미지의 폭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다. 지나간 역사가 결과한 남한의 토양이 그렇고 지금도 재촉하고 있는 여러 억압장치들이 이미 이미지의 폭을 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저질러진 현실 시각 이미지의 답답함을 탓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저항의 그늘에 위치한 이미지 생산의 팔자는 그 폭을 스스로 넓혀갈 수밖에 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시각 이미지 생산의 폭이 넓어질수록 현실 시각 이미지의 폭이 정비례로 넓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함의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잦은 발디딤이 분명 현실의 폭을 점차 넓힐 수 있겠다는 믿음이다. 현실의 배반. 어찌되었건 그것이 다른 현실로 로그인할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9. 하이퍼텍스트 ● 눈앞에 펼쳐진 현장보다 권력에 의해 제공되는 매체로부터 얻어낸 정보가 더 실감나는 세상에서 진실보다 더 진한 진실은 브랜드와 도메인 그리고 업그레이드 속도와 조회수로부터 힘을 얻는다. 하지만 그래도 현명한 유저user는 자신만의 생각들을 고수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 일방적으로 얻어맞고만 있을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절대 어리숙하지 않은 어드민admin 또한 합법적으로 배려된 다양한 컬러들을 준비한다. 이분법에서 다분법으로 변화된 환경은 단품종 대량생산을 버리고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를 구축한다. 결국 각각의 유저들에게 맞는 환경을 서비스하기 위해 어드민은 더 바빠진다. 하지만 환경이 아무리 다양하게 제공된다 하더라도 이미 자본의 게임을 고수해야 하는 합법적인 어드민은 각기 다른 생각의 모든 유저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 하이퍼텍스트는 어드민의 고민을 유저들에게 떠 넘기기 위해 고안된 것 같다. 마치 계속되는 희생을 요구하는 스톱옵션처럼 유저들의 목을 더 단단한 쇠고랑으로 묶어놓으려 한다. 어디서부터 출발하여도 상관없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있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결국 각각의 유저들은 꼬끼리를 더듬는 장님들처럼 서로 다른 정보들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한다. 어드민의 실체가 최소화된 상황에서 유저들은 자신만의 세계

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역시 개운치 않은 것은 아직도 어디선가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을 누군가의 모습이다. 도랑치고 가재잡고, 손안대고 코풀기.

10. 넷아트 싹 틔우기 ● 초고속 인터넷 전용선의 보급이 몇 년새 계속 급증하고 있다. 이제 일반 가정집에까지 전용선이 깔리고 있으며, 현재도 팩시밀리보다 더 많은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다. 웹이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효용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확연히 그 범위에 대해서는 뭐라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무궁한 아이템들과 관심의 규모로 보아 지금까지 보여줬던 변화보다 훨씬 더 커다란 변화를 결과해 낼 것이라는 기대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시각 이미지 생산 및 소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몇 년새 늘어난 온라인 미술공간들의 활동으로 보아 그 심도 및 파급력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내실 있는 성과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미술과 담론>, <네오룩셈부르티>, <블라인드사운드닷컴>, <오픈아트>, <가나아트닷컴>, <헬로아트닷컴>, <히우아트닷컴>, <인옥션>, <푸른사람들>, <중국로봇>, <미메시스티비>, <사이버 인사동>, <아트파트닷컴>, <아트월닷컴> 등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과 연계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진행중인데 이들 말고도 작가 또는 전시기획자들의 필요에 의해 구축된 각양각색의 사이트들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넷아트의 출현이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멀티미디어 환경이 구축되면서 이미지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본격 디지털 예술인 넷아트의 영역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넷아트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이 이루어지면서 온라인으로 시각 이미지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모두 이루어지는 미래형 비물질 시각문화의 지평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직 넷아트에 대해 선불리 정의하기란 힘들지만 그래도 그리 막연하지만 많은 프로젝트들이 하나 둘씩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 허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1. 사이버 사이버 ● 세기말의 막다른 분위기로 치달았던 시기에 시작한 온라인 문화는 '사이버 예술'로서의 기대를 저버리고 재빠르게 생활로 편입되었다. 물론 몇몇 거대 미술단체 및 기관들의 썰렁한 홈페이지는 예나 지금이나 그 깔깔함을 자랑하며 '온라인 명함 또는 간판'의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온라인 미술계의 구축은 생각보다 늦은감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2004년 '미술인회의'가 창립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비 없는 자식들'만 온라인에 연결된다는 사고가 불식되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어찌되었건 '미술인회의'는 온라인 미술계의 평균연령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12. 도서관에 없다. 그리고 서점에도 없다. ● 시각문화의 입장에서 인터넷이 바로 전의 통신수단이었던 피씨통신과 팩스 또는 케이블티비와 달랐던 가장 큰 차이점은 고밀도 화상전송이 실시간으로 가능했었다는 것이다. 아마 이로부터 사이버 갤러리니 뭐니하며 호들갑을 떨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남한에 사이버는 없다. 다만 온라인만 있을 뿐이다. ● '이미지 속닥속닥'은 사이버가 아닌 철저한 온라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온라인의 장점과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다만 온라인이기 때문에 도서관에도 없고 서점에도 없는 데이터를 축적시킬 수 있었다. 항상 전시를 하게 되면 남게되는 '찌개받침용' 도록들. 그것들의 물질성을 제거시키고 온라인 상에 정보만을 축적시킨다는 전략이었다. 이제 너저분한 책꽂이 또는 박스에서 색바랜 도록을 찾는 것보다는 몇 번의 검색과 클릭으로 과거의 전시정보를 찾는 것이 더 빠른 시점이 되었다. 물론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정보에는 제한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애당초 모든 정보를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13. 블랙홀이 아니라 화이트홀이어야 한다. ● 대안공간을 생각했었다. 물론 오프라인이면 더 좋았겠지만 없는 형편에 온라인에서나마 대안공간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온라인상의 대안공간은 오프라인과 달리 블랙홀이 아니라 화이트홀이어야 한다. 어떤 성격이 계속 머무르며 위계를 형성해 나가는 특정집단의 대안공간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대안공간을 구상했었다. 웅덩이의 물처럼 고여서 썩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성격이 유지되는 모형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 그러기 위해 제일 걱정되었던 것은 매체 스스로 덩치가 커지면 공허한 권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었다. 지난 몇 년간 이를 피하기 위해 갖가지 처방이 내려졌다. 하지만 역부족, 이제 '이미지 속닥속닥'이라는 매체는 스스로 성장하여 무성격의 괴물로 변해버렸다. 운영자 neo는 힘이 없다. 실질적인 운영자는 neo가 아니라 독자들인 까닭이다. 화이트홀이 된 '이미지 속닥속닥'에서 '입김' '채희석' '백기영' '백종옥' '김용남' '포럼A' '독자' '제공' '장경호' '이태호' '아우라백작' '아트피디' '문화연대' '공동행동' '정보통신부' '사이미대' '푸른살이' '한수진' '성난 미술인' '게으른피' '미메시스' '바람의꿈' '보헤미안' '등급보류' '빈산' '말고기닷컴' '개고기닷컴' '주황빛 골드' '혁명군쇠고기' '채식주의자' '지나가는이' '약발선 잔다르크' '이창준' 등등이 로그인과 아웃을 반복했다. 다들 머물지 않고 다른 시각문화를 위해 자신의 입장을 지켜왔던 것으로 기억된다. neo는 이들이 버겁지만 고맙다.

14. 우체국 ● 온라인 비물질 정보의 유통은 원작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미지 속닥속닥'으로 보내지는 전시행사들을 모두 관람할 수도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이미지 속닥속닥'은 또 하나의 부가서비스일 따름이다. 무한복제가 가능한 비물질 정보이기 때문에 벤야민의 아우라의 상실까지 거슬러올라간다는 것은 시각 이미지 생산자의 상상력을 너무 과소평가 하는 것 같아 낮이 간지럽다. 차라리 온라인 전시 홍보물 발송대행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맘이 편하다.

15. 웹, 돈 되는 일이 아니라 일이 돈 되게 하는 방법 ● 하루에 만통이 넘는 웹 메일을 보낸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위해 수시로 게시판을 들락달락 하며 정리하기에 바쁘다. 업그레이드를 위해 난수표 같은 HTML을 펼쳐놓으면 머리에서 쥐가 나며 굳이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에 빠지기에 일쑤다. 밤낮 없이 컴앞에 앉아 있었다니 언제부터인가 허리 사이즈와 나이가 정확히 똑같은 수치를 기록하며 한해 한해를 넘기고 있다. 점점 더 버거워지는 것을 느낀다. ● 분명 남들처럼 돈을 벌 속셈으로 웹을 하는 것은 아닐진대 생계를 이을 수 없다면 곤란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다시 돈과 일을 생각해 본다. 뭐 그리 특별한 수가 없는 것 같다.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다행스러울 뿐이다. 더구나 예전에 비하면 분명 지금은 여유로운 환경이다. 막막하지만 그래도 행복한 일이라는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일이다. ● 웹이라는 매체가 생활이 되기 훨씬 이전에 사회는 신세대와 구세대를 확연히 구분한 바 있다. 386 꼬트머리로서 이도 저도 아닌 정확히 낡은 세대인 꿀꿀한 감성은 세대의 구분이 너무 부질없어 보인다. 그저 지금을 함께 살고 있다는 동시대로서 세상을 읽고 싶다. 그리고 아직 싸워야 할 전선들이 곳곳에 위치해 있음을 몸으로 느낀다. 돈과 머리가 아니라 그저 동물적 감성으로 웹을 접하고 구축할 수 있었던 힘도 바로 그 설레임 때문이었을 것이다. 몇 해전부터 전시기획자로서 시각 이미지 생산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의 시각적 소비를 돕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한다. 물론 웹도 그 중의 하나일 뿐이다. 알다시피 돈이 되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일이 돈이 되게 만든 것이 일의 존속을 위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느낀다.

16. 온라인 시각 이미지의 과거 돌이키기 ● 인터넷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95년부터라고는 하나 시각 이미지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은 99년 즈음의 일이다. '다림미술' '아띠' '김정곤갤러리' '컬쳐코리아' '스폰지' '피바다학생공작실' '인사동' 등 지금은 잠시 쉬고 있거나 도메인을 잃어버렸지만 당시 수준에서 유용한 인터넷 시각 이미지 사이트였다. 그리고 '블라인드 사운드' '푸른사람들' '늦바람' '미술로 만드는 세상' 등 오래된 사이트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90년대 이후의 남한이다. 그래서 '이미지 속닥속닥'을 운영하는 '이미지올로지연구소'에서는 2002년 사업으로 과거 시각 이미지 돌이키기 작업에 들어간다. 도서관에도 없고 서점에도 없는 과거의 도록 데이터들을 다시 온라인 상에서 복원시키는 작업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983년이나 1988년이 될 수도 있으며, 1945년이 될 수도 있다. 미래로 발행되는 것이 '이미지 속닥속닥'이라면 과거로 발행되는 것이 '이미지올로지'가 될 것이다. 물론 둘다의 발행목적은 다른 시각문화를 위한 것이며 효과는 남한 시각 이미지의 시각적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다.

17. 아비 없는 자식들 ● 당연한 일이겠지만 1990년대 중반에 새로이 만들어진 대안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남한 미술의 과거를 잊으려 노력했다.(물론 이 말은 남한을 잊으려 했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남한 미술에 ‘그럴듯한 전통’이 없었기에 ‘모던한 상황’을 제대로 연출해보지도 못했으며, 또 그 모양이라서 ‘모던의 극복’이란 불가능할 것이라는 심각한 고민을 해왔던 1990년대 중반 이전과는 달리 그나마 후진 남한의 후진 미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돌아보자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지니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청출어람’ 식의 사고에서 ‘아비 없는 자식’으로의 전환을 이루었던 것이다. 버릇없지만 그 ‘아비 없는 자식들’이 남한의 상황에서 ‘탈모던’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18. 우체국에서 아카이브로 ● 시간... 아니 세월이 흘렀다. 벌써 햇수로 열추 십년이 되었다. 이제 ‘이미지 속닥속닥’이라는 애칭보다 ‘네오룩닷컴’이라는 회사 이름이 더 일반화되었다. 그래도 나름 규모 있는 사무실도 마련하고 4대 보험이 되는 식구들도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혼자서 막막하게 돈과 일을 걱정하던 시절이 정말 옛그제 같은데... 뜨개질하듯 만들어진 수많은 웹 페이지들을 드래그 하려면 뿌듯하기에 앞서 끔찍하다는 생각이다. 노안도 오고... 돈주고 프로그래머를 사서 로컬검색 엔진을 달았다. 좀더 빨리 로컬검색을 서비스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데이터 때문이다. 적어도 검색할 정도의 양이 베이스로 깔려야 데이터 베이스가 된다는 생각에서다. 묵혔더니 대충 데이터 베이스 같다. 로컬검색 이용 횟수도 하루 2,000건을 상회한다. 그래서 가끔 우체국이었던 과거를 숨기고 아카이브인척 해본다. 솔직히 네오룩닷컴은 IT 전문용어로 칭해지는 데이터 베이스도 아카이브도 아직은 아니다. 그저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날짜별로 쌓아놓는 어눌한 사이트일 뿐이다. 아직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여유가 없다. 좀더 기다려 보자.

19. **넘쳐나는 난민들을 태운 부실한 난파선** ● 이제 웹2.0... 웹 시작 당시의 생각처럼 웹 세상은 절대로 민주화된 기회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저 날카로운 칼에 가깝다. 때로는 연필깎는 칼일 수도 있고 과도일 수도 있다.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흉기이거나 무기로 용도변경 되기도 한다. 이제 가난한 사람이 만든 웹과 부자인 사람이 만든 웹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생각보다 빨리 웹 세상에서는 앤디 워홀의 복제된 콜라처럼 뉴욕에 있거나 아프리카에 있거나 마시는 콜라의 맛은 같다고 주장하던 전지구적 동시패션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 같은 콜라라도 먹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 다른 맛으로 느껴질 수 있는 까닭이다. 그나마 마실 수만 있다면야 다행이지만. 그래도 현실을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은 망망대해에 스스로 몸을 던져 난민이 된다. 바다에는 그 난민들을 태울 배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간신히 떠 있던 배에 사람들이 타거나 태우려고 했다간 모두 가라앉기 십상이다. 멀리 믿음직하고 거대한 항공모함이 보인다. 구조를 요청할까 말까 망설인다.

20. **인터랙티브와 인터내셔널** ● ‘그래도 아직 인터넷이다’라며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인터랙티브와 인터내셔널이어야 한다. 그리고 네오룩닷컴이 다른 시각문화를 위한 ‘이미지 속닥속닥’인 까닭에 통일을 생각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로서 미래를 구축하는 지루한 싸움에 한동안 더 빠져 있어야 할 것 같다. ■

●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운영 현황과 발전방향

이호신 (아르코예술정보관장)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이 호 신(아르코예술정보관장)¹⁾

1. 여는 말

정보화 사회 또는 지식정보사회로 일컬어지는 오늘날, 지식과 정보는 새로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근원으로서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기둥의 하나가 되고 있다. 지식과 정보 가운데에서도 특히 문화와 예술은 매우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으로 사회적인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 데이터를 가공하여 처리하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술 작품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재생산될 수 있는 원천자료로써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지난 수년간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예술정보화를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정보화의 원천 기반이 되는 기록 자료의 확보와 그에 대한 엄정한 가치 평가 작업을 도외시한 채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과 하드웨어의 확충,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기존 자료의 무차별적인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작업이 추진되어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역동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힘은, 발달된 정보통신망과 컴퓨터프로그램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값어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잘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가에서 비롯될 것이다. 그리고 값어치를 가진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창출을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기록과 자료를 꼼꼼하게 조사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와 연구의 과정은 그 바탕이 되고 재료가 되는 원천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으로부터 비로소 출발된다. 특히 예술 작품은 단순한 개별적인 지식의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한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또한 그 역사를 올바르게 정초할 수 있는 사료로써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기록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인 정체성과 역사 인식의 지평을 바로 세우는 작업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예술의 정체성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과 정서를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내고, 그것이 다시 우리 사회로 환원되어

1) leehs@arko.or.kr

많은 이들이 감상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예술작품이 창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커다란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지만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예술의 가치가 부각되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예술 작품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의 예술 기록과 자료의 보존과 관리는 빈약하기가 이를 데 없는 실정이다. 수많은 예술 활동의 부산물과 관련 기록들은 아무런 관심 대상도 되지 못한 채 급격하게 소실되고 있어 새로운 창작과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는 절대적인 부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까닭에 최근 들어 우리 예술계에서는 예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는 도서관, 박물관 혹은 아카이브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문화예술 전문도서관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운영현황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아르코예술정보관 사업의 특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먼저 기록물로서 예술자료가 갖는 특성을 개괄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아르코예술정보관의 구체적인 운영현황과 사업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예술자료의 종류와 특성

가. 예술자료의 종류

예술 작품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는 다양한 유형을 아우른다. 예술 활동의 가장 궁극적인 결과물로 생산되는 자료는 예술 작품 그 자체이고, 예술작품의 해석을 뒷받침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부수적인 자료가 함께 생산되거나 활용된다. 예술자료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자료의 내용과 그 쓰임새에 따라 예술자료를 구분해 보고자 한다. <표1>²⁾은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자료를 그 내용과 쓰임새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다.

2) 이호신 외(2007), <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활용 방안 연구> 25쪽. 서울 :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관광부.

3) 사진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예술 작품으로서 예술 활동의 내용 자체를 이루기도 하며, 특정한

<표1> 자료의 내용과 쓰임새에 따른 예술자료의 구분

구분	구체적인 자료	비고
예술 활동의 내용 자체를 기록하고 있는 자료	(육필)원고, 도서, 대본, 악보, 그림, 녹음 / 녹화물, 사진 ³⁾	
예술 활동의 소개 및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	서평, 공연(전시)평, 신문기사,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사진	
예술 현장에서 직접 활용되는 자료	악기, 의상, 소도구, 설계도면 (건축, 무대) 문서, 연습 그림 등	
예술 활동 종사자 또는 예술 활동의 현장에 관한 정보	인명정보, 단체정보, 공간정보	무형
예술 활동에 관한 통계	통계데이터	무형

예술자료를 협의로 정의할 경우에는 예술 활동의 내용 자체를 기록하고 있는 자료와 예술 활동의 소개 및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객관적인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면서 그 안에 예술 활동에서 발생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머지의 것들과는 구분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수록된 정보의 쓰임새가 예술 활동의 실제적이고 궁극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소개하는 역할인지에 따라서 그 각각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 자료를 광범위하게 정의할 경우 위 다섯 가지 영역이 모두 포함된다. 예술 현장에서 직접 활용되는 자료의 경우에도 물론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정보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 안에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적 가치를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자료는 그것이 가지는 정보적인 가치보다는 실물로서의 사료적인 의미가 더욱 크기 때문에 앞서 두 가지와는 구분이 된다. 한편 예술 활동 종사자나 예술 활동의 현장에 관한 정보나 통계에 관한 부분은 물리적인 형체를 띤 자료가 아니라 무형의 정보를 생산하는 영역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세 가지의 자료와는 구분할 수 있다.

다섯 가지 범주의 자료는 각각 그 생산과 유통의 경로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떠한 객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에 따라서 자료 수집의 경로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단체, 공간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는 그 실제적인 정보의 내용을 구성하게 될 당사자들로부터의 직

예술 활동의 현장을 기록하고 그것의 특징적인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분류에 모두 포함시켰다.

접적인 조사의 과정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것이며, 예술 활동 관련 통계의 경우에는 각종 예술 행사에 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체계화하는 조사연구의 작업이 동반될 것이다.

나. 예술자료의 특성

1) 생산과 유통, 수집과정에서의 특징

문학작품의 경우에는 작가가 원고지나 컴퓨터에 직접 기록한 작품이 출판이라는 유통시스템과 결합되어서 보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도서라는 확실한 유형의 자료가 생산되고 매우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자료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이 되어 체계적인 보존이 이루어진다. 작가 개인의 욕필원고 또는 개인적인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일기나 편지와 같은 것들도 작가의 개인적인 삶을 연구하고 작품의 심층적인 배경과 의미를 탐구하는 데 참고할만한 귀중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 자료는 작품과 작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이러한 까닭에 문학작품은 대부분 도서관을 중심으로 그 기록이 보존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개인별 문학관과 같은 박물관 성격을 지닌 기구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조형예술의 경우 작가의 정신세계를 구현한 작품은 전시회나 작품의 매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작가가 만들어낸 작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작품이 매각되거나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인수되고 나면 해당 작품에 대한 공중의 접근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커다란 특징이 있다. 조형예술과 관련된 자료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무엇보다도 작가가 직접 생산해낸 작품일 것이다. 그렇지만 미술작품은 그 가격이 매우 고가이기도 하며, 미술관이나 갤러리의 수집의 대상이기 때문에 작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범주의 자료와는 구분해서 관리하고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조형예술과 관련된 자료는 작품 이외의 관련 연구서, 전시회 관련 자료, 작가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자료들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형예술의 경우에는 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에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품의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는 도록이나 팸플렛이 미술작품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도록이나 팸플렛은 조형예술의 활동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자료는 아니지만 미술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소개하고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자연스럽게 생산이 이루어진다. 정식 출판과 유통 경로를 따라서 생산과 배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상대적

으로 소량으로 제작된 자료들이 전시회 참가자 등에게만 한정적으로 배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한편 조형예술 작품은 언어를 매개로 하는 문학작품에 비해서 그것이 상징하고 언급하고자 하는 의미가 추상적인 형태를 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작품의 해석을 위해서는 창작과 관련된 작가의 의도 등을 담은,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진다. 작품 해석의 단초가 되는 이러한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작품의 해석은 작가의 창작 의도와는 무관하게 해석자의 개별적인 상상력에 의존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조형예술 분야에서 도서와 화집 이외에 수집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자료를 총망라해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작가의 생애동안 예술협회, 가족, 친구로부터 온 개인편지
- 갤러리, 딜러, 수집가, 비평가, 협회, 기관으로부터 사무적으로 온 서신
- 보낸 편지의 원본 및 복사본
- 주제에 관한 아이디어, 활동, 여행, 판매, 전시, 선택의 시각을 보여주는 일기 혹은 일지
- 스케치북, 자유로운 스케치와 연구
- 작업뿐만 아니라 테마가 된 가족, 친구, 작업실에 관한 사진, 슬라이드, 필름, 비디오 테이프
- 강연, 연설, 출판 혹은 처음부터 초고까지의 미출판된 논문
- 녹음테이프
- 스크랩북, 기사모음, 전시카다로그, 전시인사말
- 교육교재, 강의노트, 리포트, 해설, 비평
- 조사 파일
- 청구서, 영수증, 대장을 포함하는 회계장부⁴⁾

한편 공연예술의 작품 창작과정이 여러 사람의 협동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공연과 동시에 그 실재는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는 점에 커다란 특징이 있다. 작가나 안무자의 개인적인 사고와 움직임 속에 자리 잡은 대사와 동작과 선율은 연주자, 배우, 무용수의 동작과 무대, 음향, 조명 등 스태프들의 협동 작업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지만, 그것이 발생하는 순간과 동시에 소멸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에 공연 작품은 실제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이 다른 예술장르와는 크게 구분되는 점이다. 희곡이나 악보, 무보 등의 기록이 생산될 수 있지만 그것은 공연의 바탕이 되는 재료에 지나지 않고, 작가의 의도를 충실하게 재현해내기 위한 보조

4) 김기현(2000), <아트아카이브의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 22쪽. 서울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희곡이나 악보, 무보 그 자체가 공연 예술의 실체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연의 완벽한 재현과 기록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편이 합당할 것이다. 다만, 녹음이나 녹화, 사진촬영과 같은 의도적인 기록과정의 개입을 통해서 공연의 부분적인 단상과 흔적을 기록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기록은 공연현장에서의 관객과 출연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무대 전체와 디테일 등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공연의 흔적에 불과하지만, 공연의 실체에 가장 근접해서 작품의 가치를 보여주고 증거 할 수 있는 기록물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다른 예술 장르의 경우에는 작품의 생산과정에서 모두 유형의 기록이 생산되는 반면에 공연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태를 가지지 않은 공연이라는 실체를 의도적인 기록의 과정이 개입 해야만 한다는 점에 매우 커다란 특징이 있다.

위와 같은 특성을 종합해보면, 대개 예술자료는 특정한 전시나 공연과 관련하여 비교적 소량의 자료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제한된 장소를 중심으로 통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도서와 음반 등 일부의 자료를 제외한 대부분은 체계적인 유통의 경로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공연팜플렛이나 전시팜플렛의 경우에는 공연장이나 전시장과 같은 예술 활동의 현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방문한 사람들만을 제한적으로 대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인 유통 경로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되는 자료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도서관의 자료와는 상당히 구분이 된다. 공연예술이나 조형예술 활동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될 수 있는 자료는 그 매체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반드시 어떤 특정한 형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간편하고 손쉽게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자료를 일괄해서 구입하거나 법률로써 납본이나 이관을 강제하는 방법이지만, 예술자료는 일반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서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술 활동의 과정에서 특정한 유형의 자료가 반드시 생산되는 것으로 유형화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납본과 같은 법률적인 정책으로 그 수집을 강제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이러한 자료의 수집은 그 생산 또는 유통에 관여한 사람이나 개인수집가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자료로서 보존의 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해당 예술 활동에 대한 기록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기도한다. 따라서 예술자료의 수집은 그 특성상 상대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특징이 있다.

2) 예술자료의 보존과 정리에 관련된 특성

예술 활동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기체는 언어를 비롯하여 소리와 몸짓 그리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기도 한다. 때문에 그 표현방식에 따라 그것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방식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학술적인 지식과 정보의 기록과 전달이 주로 언어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예술 자료는 언어, 소리, 이미지, 동작 등을 두루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매체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일반적인 학술정보에서는 문헌자료가 중심을 이루고 영상자료나 녹음자료의 경우에는 문헌자료를 보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접촉할 수 있는 부수적인 자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예술자료의 경우에는 영상이나 녹음자료가 오히려 훨씬 더 본래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예술자료는 이렇게 매체 자체가 매우 다양해서 개별 매체에 따라 서로 상이한 보존 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공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또한 거의 표준화된 규격과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도서에 비해서 이러한 매체들은 크기와 형태 그리고 그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 값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 보관과 관리에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예술자료는 문자, 이미지, 음성, 동작 등 다양한 표현 형식을 이렇게 다양한 매체에 표현하고 있다. 도서의 경우에는 해당 도서라는 실물만 확보하고 있으면 그 안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을 해독할 수 있지만, 음성과 동작을 기록하고 있는 매체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자재를 활용해야만 그것을 해독할 수 있다. 특히 정보처리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에 따라 이러한 기록 매체가 그 동안 매우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어서 근현대기의 예술자료는 그야말로 다양한 매체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까닭에 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의 사용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기기를 확보하고 있거나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매체로 변환하는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특히 음성과 동작을 기록한 마그네틱 테이프 같은 정보 매체는 종이 위에 기록된 정보에 비해서 그 보존성이 매우 취약하다. 종이 위에 기록된 정보가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존이 되는 반면에, 마그네틱 테이프 위에 기록된 정보는 통상 50년 이상 보존하기 어렵다는 것이 자료보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이러한 매체에 기록된 자료의 경우에는 그 영구적인 보존을 위해서 다른 매체로의 이전이나 변환작업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만 그 사용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예술자료의 경우에는 자료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활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자체의 속성 값이 매우 다양하게 산재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그 메타데이터⁵⁾를 표준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도서의 경우

에는 국제표준으로 지정된 MARC(Machine Readable Catalogue) 포맷을 활용해서 목록정보의 상호 교환과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도서관은 도서의 분류와 목록을 상호 협동 체제에 의해서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자료는 메타데이터 포맷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또한 설사 그 포맷이 표준화되어 있어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대단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호 협동을 통해서 공동으로 분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때문에 예술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관의 대부분은 메타데이터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수고를 감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다른 분야의 지식 정보에 비해서 예술자료는 상대적으로 자료 조직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3. 아르크예술정보관의 운영 현황

가. 연혁과 사업개요

아르크예술정보관은 각종 문화예술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보존하여 문화예술인 및 일반인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창작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9년에 문예진흥원(현 예술위원회)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아르크예술정보관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등 모든 예술장르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은 물론이고 공연대본, 음반, 비디오, DVD, 공연실황 동영상, 공연팸플렛, 공연포스터, 사진, 미술팸플렛 등 다양한 예술 자료 약 26만 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문화예술 전문도서관이다.

서초동 예술의전당에 자리한 아르크예술정보관은 2층의 문헌정보실과 3층 영상음악실 약 2,300평방미터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 2층 문헌정보실에는 예술과 관련된 전문서적과 국내외 연속간행물 약 360여종이 비치되어 있으며, 공연대본

-
- 5)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집된 자료의 상세한 내역을 정리하여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정보를 의미한다. 개인이 소장하고 관리하는 자료와는 달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자료에는 이러한 메타데이터의 구조화가 필수적인 작업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도서관의 MARC 포맷이다. MARC는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이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정보로, 도서관의 메타데이터의 구조화에 관한 한 국제표준으로써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렇지만 예술자료의 경우에는 그 매체가 너무도 다양하고, 그 세부적인 기술(記述)의 항목도 장르별, 매체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준화하기에 훨씬 더 어려움이 있다. 도서관과 같이 범용의 매체가 아니라 매우 특정한 장르와 매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 작업의 수요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

약 8,000여편이 개가제로 비치되어 있다. 3층 영상음악실에는 공연실황 영상자료(비디오, DVD, 필름), 음반자료(SP, LP, CD, 카세트테이프, 릴테이프), 공연팸플렛, 포스터, 미술팸플렛, 슬라이드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비교적 활발하게 이용되는 자료인 CD, DVD, 비디오는 개가제로, 기타 자료들은 폐가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르코예술정보관은 도서관으로서의 일상적인 업무인 자료의 수집과 정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사업>, <우수 공연 영상제작> 등과 같이 예술계에 유용한 자료를 발굴하고 제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소장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정보서비스>, <미술작가 500인 홈페이지>, <구술로 만나는 한국 예술사>, <한국동인지문학관> 등 다양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고전음악강좌>, <명작예술감상회>, <아르코미술강좌>, <문학, 작가의 목소리로 남다>와 같은 다양한 예술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호흡을 함께 하고 있다.

2007년 12월 현재 약 3,100명의 정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단행본과 음반자료 등에 대한 관외대출과 아르코예술정보관이 구독 중인 각종 유료 데이터베이스를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후 5시까지 개관을 하고 있다. 2007년도 기준으로 연간 오프라인 이용자 약 5만 7천 여 명이 아르코예술정보관을 이용하고 있다.

<표2> 아르코예술정보관 최근 6개년간 운영실적6)

구 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개 관 일		323일	334일	339일	294일	291일	291일	
회 원	신규가입	653명	584명	568명	390명	471명	412명	
	전체회원	3,151명	2,498명	1,914명	1,342명	953명	481명	
대출건수	전 체	49,178점	47,250점	33,675점	25,915점	23,667점	20,052점	
	문헌정보실	11,998권	23,027권	8,165권	5,871권	5,425권	5,161권	
	영상음악실	37,180건	24,223건	25,510건	20,044건	18,242건	14,891건	
방 문 이용자수	전 체	인원수	56,908명	42,954명	33,423명	27,751명	27,435명	23,797명
		1일평균	176.2명	128.6명	98.6명	94.4명	94.2명	81.8명
	문헌정보실	23,670명	18,016명	13,361명	10,066명	11,038명	10,356명	
	영상음악실	33,238명	24,938명	20,062명	17,685명	16,397명	13,441명	
온라인 이용현황	접속자수	298,376건 ⁷⁾	186,726명	166,774명	98,328명	N.A	N.A	
	1일평균	817.5명	559.0명	456.9명	269.4명	N.A	N.A	
	웹회원가입자	745명	800명	1,282명	N.A	N.A	N.A	

<표2>는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최근 6년 동안의 운영실적 현황이다. 2002년 이

래로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자료의 대출과 관련 실적은 무려 2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문이용자 뿐만 아니라 온라인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아르코예술정보관이 이용자 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의 개선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평생회원제도가 정착되면서, 회원들을 중심으로 그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2005년도부터는 토요일뿐만 아니라 일요일까지도 개관시간을 연장한 것도 이용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다양한 예술사회교육프로그램을 증설한 것도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표3>은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소장자료 현황이다. 단행본, 연속간행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매체의 예술자료가 수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도서자료의 비율은 약 30%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70%의 자료는 영상자료, 음악자료, 공연팜플렛, 포스터, 공연대본 등 다양한 비도서자료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영상자료의 상당 부분은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자체적인 제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동인지, 공연팜플렛, 공연포스터, 공연대본, 사진 등은 국내 타 기관에서는 거의 수집되지 않는 것들에 해당이 된다. 특히 이 가운데 공연대본의 경우에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며, 그 범위도 해방 이후 한국의 유명 희곡작가의 작품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방대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또한 음악자료의 경우에도 KBS와 같은 일부 방송기관을 제외하고는 국내 각급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한 음악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성기음반(SP)과 턴테이블 음반(LP)와 같은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매체의 자료들도 소장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아르코예술정보관만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자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의 일부는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완료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2) 문제점

① 조직 및 인적 구성에서의 문제점

아르코예술정보관은 그 모체기관인 예술위원회의 일개 부서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예술위원회의 인사정책에 따라서 채용되고 인사이동을 하게 된다. 현재 비정규직 1명을 포함해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관장(1급 정사서) 1명, 사서 5명, 영상제작전문요원 1명, 웹디자이너 1명, 행정요원 2

6)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7) 2007년도 미술작가500인(<http://art500.arko.or.kr>) 홈페이지 방문 건수(91,627건) 신규 포함.

<표3>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소장자료 현황 (2007.12.31 현재)

분류	분류	단 위	보 유 량	비 고	
도 서 자 료	단 행 본	권	63,634		
	연속간행물	권(합본)	12,696	420종	
	동 인 지	권	5,027	774종	
	소 계	권	81,357		
비 도 서 자 료	공 연 대 본	대 본	편	6,284	8,954 줄거리 432, 음악대본 64
		마이크로필름	편	4,553	
		폴텍스트 D/B	편	4,529	
	공연 팸플렛·프로그램	건	16,926		
	전시 팸플렛·도록	건	40,569		
	포스터	원 본	점	3,267	
		사진본	점	4,547	
	사 진 자 료	매	47,645		
	마이크로 필름 악보	편	783		
	소 계	점	122,691		
영 상 자 료	레이저 디스크	개	767		
	VHS 비디오	개	11,828	Betamax, Umatic 자료 VHS 전환본 포함	
	U-Matic 비디오	개	1,030		
	Betamax 비디오	개	72		
	Betacam	개	25		
	Digital 비디오	개	867		
	슬 라 이 드	개	168		
	16mm 필름	개	281		
	VCD	장	40		
	DVD	장	4,587	DVDP 포함	
소 계	개	19,665			
음 악 자 료	컴팩트 디스크	개	17,802		
	카세트 및 릴테이프	개	3,703		
	LP	개	4,137		
	SP	개	2,798		
	소 계	개	45,307		
뉴미디어	CD-ROM	개	802	학술D/B 73종 포함	
총 계	269,822점				

명이 아르코예술정보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사서 배치 기준에 따르면 아르코예술정보관에는 총 52명의 사서 직원이 근무해야 한다.⁸⁾ 그러나 현재 아르코예술정보관은 사서 직원의 법정 배치 기준은 고

8)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사서직원의 배치) 별표 2에 따르면 아르코예술정보관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에 해당되어, 사서직원의 배치 기준은 공공도서관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건물 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사서 직원 3명을 두고,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두도록 하고 있으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두도록하고 있다. 따라서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시설사용면적과 소장자료의 양을 토대로 사서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정 사서 배치 인원을 산정하면 위

사하고, 전체 직원의 수가 법정 사서 배치 기준의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슷한 규모의 장서를 확보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도 현재 아르코예술정보관과 비교하였을 때 훨씬 더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4>⁹⁾은 아르코예술정보관과 비슷한 규모의 장서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자료 증가량이 유사한 서울 시내 일부 공공도서관의 직원과 자료, 연간 자료 구입량

<표4> 서울시내 공공도서관의 직원과 자료, 연간자료 증가량 등

도 서 관 명	시설면적 (㎡)	소장자료 (점)	직원수			자료구입 예산 (천원)	연간자료 증가량	대출책수	년간개 관일수	1주일 당 개관시간
			전체	사서	법정사서 확보율					
아르코예술정보관	2,300	269,822	10	6	11.2	201,000	24,651	49,178	323	76
강남도서관	1,631	155,039	21	13	39.4	100,008	9,827	221,584	328	68.5
강동도서관	2,584	171,606	23	14	38.9	105,817	10,518	259,944	328	71
강서도서관	4,023	216,785	32	21	42.9	112,358	11,993	276,888	330	81
개포도서관	2,377	171,726	22	15	41.8	109,896	9,495	283,598	326	68.5
고척도서관	5,437	178,413	30	20	43.4	97,818	10,443	348,008	326	71
도봉도서관	2,743	201,858	25	18	41.9	95,057	10,530	341,291	326	68.5
동대문도서관	4,505	228,850	35	22	41.5	111,159	10,794	243,237	328	71
서대문도서관	3,909	176,516	25	16	39.0	85,400	9,648	261,626	329	71
송파도서관	8,472	185,316	34	21	36.8	132,732	13,817	468,961	325	68.5
양천도서관	6,864	228,426	38	22	36.7	123,730	11,178	458,053	297	68.5
용산도서관	6,946	258,081	31	15	22.7	121,841	12,930	236,950	326	68.5
마포평생학습관	9,716	212,701	40	24	24	174,205	11,217	377,332	327	68.5

등을 보여주는 통계자료이다.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비슷한 규모의 도서관에서 비해서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법정 사서 확보율이 30% 후반에서 40%대에 이르고 있으며, 최하의 확보율을 보이는 곳도 22% 정도인데, 반해 아르코예술정보관은 이들 공공도서관 가운데 사서 확보율이 최저를 나타내는 곳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서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도서관이 시설관리와 같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자료의 열람과 대출이 아르코예술정보관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개관시간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긴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규모의 인원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와 질 높은 자료의 수집을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술 자료의 수집과 관리는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 수요를 동반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아르코예술정보관은 이들 공공도서관이 수행하지 않는 공연영상제작사업, 예술사구술채록사업 등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예

와 같은 수치가 산정된다.

9) <2007 한국도서관년감>(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7) 412~414쪽의 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술계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지속하고 있으며, 자료의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과정도 단행본을 제외하고는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사업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공공도서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인력 소요를 동반한다. 때문에 이런 절대적인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을 외주와 보조인력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르코 예술정보관의 근무 인력은 이런 외주 작업과 보조요원을 관리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이다. 또한 잦은 외주 작업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데이터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고, 계약상에 반영되지 않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절대적인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예술위원회는 인사이동이나 인력 충원에서 아르코예술정보관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근무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5>은 지난 5개년 동안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연간 업무보고 자료에서 추출한 매년도별 근무인력의 수이다. 2005

<표5> 최근 5개년 아르코예술정보관 근무 인력 수

(매년 연간 업무보고자료에서 추출)

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근무인력(명)	14	15	13	11	10

년에 15명이던 근무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10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이렇게 근무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동안에도 아르코예술정보관은 지속적으로 개관시간을 연장하고, 프로그램을 증설하였으며, <표2>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이용자 수와 자료 이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까닭에 아르코예술정보관 업무는 예술위원회의 각종 행정업무와 일상적인 업무의 처리도 버거운 실정이며, 예술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하는 데 소요하는 시간의 비율이 매우 낮은 형편이다.¹⁰⁾

절대적인 근무 인원의 부족과는 별도로 또한 인력 구성에서도 예술전문도서관 또는 아카이브로서 역할을 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르코예술정보관이 본격적인 예술기록보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역의 인력이 필요로 할 것이다. <표6>¹¹⁾은 예술기록보존기관에 필요한 전문직역을 정리한 것이다. 예술기록보존기관으로서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사서 또는 아키비스트 외에도 학예연구원과 컨서베이터, 전산전문

10)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2006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보고서> 쪽.

11) 이호신 외(2007), <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활용방안 연구> 126쪽. 서울 :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관광부.

가, 영상제작전문요원, 행정요원 등이 각각의 직역에서 전문 역량을 발휘해야만 할 것이다.

<표6> 예술기록보존기관의 필요한 전문직역과 담당업무

직역	담당업무	비고
사서 또는 아키비스트	○자료의 수집과 평가 ○자료의 분류와 메타데이터 조직 ○이용자 서비스 제공(상담, 교육, 장서관리)	
학예연구원	○주제별 자료의 수집과 평가 ○연구와 자료 재생산 ○전시 및 교육의 기획, 진행	
전산전문가	○홈페이지 및 관련 시스템 운영 ○전산기자재의 운영과 관리	
컨서베이터	○자료의 보존과 복원, 수리	
영상제작요원	○영상자료 제작	
행정요원	○기획, 예산, 총무, 인사, 회계, 홍보, 출판, 시설관리	

그렇지만 아르코예술정보관은 법정 배치 기준에 11.2%에 불과한 사서 직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영상제작요원 1명과 웹디자이너 1명을 확보하고 있을 뿐이다. 학예연구원을 단 1명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와 연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컨서베이터를 통한 자료의 전문적인 보존과 복원, 수리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전산전문가의 부족으로 자료 관리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아르코예술정보관이 예술위원회의 일개 부서로써 독자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술자료의 수집과 보존, 정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선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특히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기금지원 활동을 가장 우선 시하는 예술위원회의 업무 구조에서,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사업에서의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인사정책 등에서 우선적이고 전향적인 배려를 기대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② 예산과 수집 자료의 문제

아르코예술정보관은 2008년도 현재 연간 약 14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 문예진흥기금 예산의 약 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문예진흥기

<표7>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최근 5년간 예산 현황 (단위:천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일반운영	902,702	772,583	429,362	349,362	428,420
콘텐츠수집			412,100	425,100	409,100
정보화 ¹²⁾	354,782	685,530	234,500	167,500	222,500
구술채록	350,200	279,200	279,200	301,200	300,200
사회교육	34,065	154,065	34,065	36,265	44,768
계	1,286,987	1,202,809	1,389,227	1,279,427	1,414,988

금사업 내에서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이 가운데에는 약 2억 4천만 원의 시설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술채록사업이나 우수공연영상제작, 자료 구입과 같이 실제적인 자료의 수집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장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비용,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표7>은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의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운영 예산을 분석한 것이다. 시설물 운영과 일반적인 운영, 그리고 콘텐츠수집, 구술채록사업이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커다란 변동폭을 보이고 있다. 정보화 예산 가운데 2004년도와 2005년의 예산의 대부분이 문예진흥원 전체의 행정전산화와 관련된 예산임을 감안한다면, 이 경우에도 그리 커다란 변동폭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들어서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예술계의 예술자료와 기록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획기적인 증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정보화와 관련된 예산의 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효과적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화 사업의 경우에는 시스템의 개발과 데이터의 구축을 위해서 초기 단계에서의 막대한 예산 투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정보화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로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정보화 예산은 소장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DVD 변환과 소장자료의 메타데이터의 구축에 사용되고 있을 뿐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개선과 콘텐츠의 본격적인 디지털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르코예술정보관은 국내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공연대본, 공연실황영상자료, 사진이미지, 공연 및 전시팝플렛, 포스터 등의 다량의 귀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나 관련 사업 예산의 부족으로 이러한 자료의 전면적인 디지털화와 서비스 제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르코예술정

12) 예산 편성 및 사업편성 지침의 변경에 따라, 2004년과 2005년의 정보화 예산의 경우에는 문예진흥원 전체의 행정전산화와 관련된 예산이 포함된 금액임.

보관은 그 미래지향적인 비전으로 유비쿼터스 라이브러리의 구축을 선언적으로 표방¹³⁾하고 있으나, 현재의 예산 구조로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보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콘텐츠 수집 예산의 경우에는 우수공연실황 영상제작사업과 각종 자료구입비, 온라인 콘텐츠의 구독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예술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국내·외 도서 및 연속간행물, 국내 및 해외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저널까지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개인 소장 자료의 유상 구매 또는 적절한 사례 제공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산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 유통경로를 통해서 수집하기 어려운 귀중자료의 적극적인 수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리고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 예술 전 장르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장르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운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술위원회의 사업 특성 상 특정한 장르에만 초점을 맞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표방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다 전략적인 계획에 입각한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이다.

<표8>¹⁴⁾는 미술 분야의 단행본 소장현황이다. 전체 단행본 소장량 63,634권 가운데 25.7%에 해당하는 16,333권이 미술분야의 도서임을 보여준다. 미국의 게티재단(Getty Foundation)이 확보하고 있는 90만권, 프랑스 국립미술사연구소의 45만권, 일본의 동경문화재연구소의 13만권¹⁵⁾ 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

<표8> 아르코예술정보관의 미술분야 단행본 소장 현황 (2007.12.31 현재)

구 분	국내자료		일본/중국자료		서양자료		전체	
	종	권	종	권	종	권	종	권
예(미)술일반	3,508	4,770	171	309	1,108	1,318	4,787	6,397
건축	1,099	1,281	8	8	315	328	1,422	1,617
조각	259	279	11	11	146	156	416	446
공예	1,391	1,470	83	104	292	310	1,766	1,884
서예	211	287	19	101	6	6	236	394
회화	3,689	4,054	108	225	1,122	1,316	4,919	5,595
합계	10,157	12,141	400	758	2,989	3,434	13,546	16,333

도로 작은 규모의 장서이다. 특히 비교적 우리와 유사성을 띄고 자료의 수집이

13) 아르코예술정보관(2006), <2006 아르코예술정보관 비전과 운영전략> (예술위원회 내부자료)

14) 출처 : 예술위원회 내부자료

15) 이호신 외(2007), 63쪽.

용이한 일본과 중국의 출판물도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단행본 이외에 아르코예술정보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 관련 자료는 연속간행물 239종과 미술팝플렛 40,569점뿐이어서, 앞서 제시한 다양한 미술관련 기록물(작가의 개인 편지, 일기, 스케치북, 작업과 테마에 관련된 기초자료, 스크랩북, 조사파일, 회계장부, 미술작가 인명정보 등)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모든 장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큰 틀에서는 대개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소장 자료는 그 방대함과 소중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예술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4. 아르코예술정보관의 발전 방향

가. 한국 예술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의 집대성과 연구의 제도화

예술 자료와 기록의 수집과 보존은 예술기록보존기관의 본연의 기능이다. 그 본래의 기능이 강화되지 않고서 다른 부가적인 영역의 업무가 아무리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관의 운영 목적과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은 무엇보다도 예술자료와 기록의 수집과 보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제공되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한낱 호사스럽고 요란한 장식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최첨단 정보기술과 고객중심의 서비스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혜택과 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적으로·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료의 충분한 확보가 우선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하루에도 수 백 개, 수 천 개 씩 쏟아지는 기록과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자료 가운데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평가하는 작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적인, 증거적인, 사료적인 가치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다시 효과적으로 재가공하는 작업을 통하여 소장자료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아르코예술정보관은 단순히 수많은 자료들을 쌓아놓고 누군가 찾아와서 그것을 이용해 주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수집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선별하고, 선별된 자료의 역사적인·예술적인 가치를 고증하고 그것을 다시 예술계로 적극적으로 환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면모도 함께 지닐 수 있

도록 개선되어야만 한다. 조사와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만 수집되는 자료의 질적인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며,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만 예술기록보존기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정된 자료 수집비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자료수집에 있어서도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불가피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세밀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 수집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아르고 예술정보관이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은 아무래도 우리 예술사와 관련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하여 보존하는 일이 될 것이다. 아르고예술정보관은 우리 예술의 지난 발자취와 흔적을 끌어 모으고,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관한 기록을 확보하는 일에 가장 주력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 예술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적인, 공간적인 범위, 매체별 범위를 세부적으로 확정짓고, 그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따라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수집의 매체별 범위는 기존의 단행본과 각종 시청각자료 등은 물론이고, 유형의 형태를 지니지 않은 예술가에 관한 정보, 예술단체에 관한 정보, 예술 활동 현장에 대한 정보, 예술 활동에 관한 통계와 같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영역으로까지 그 수집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무수하게 생산되고 있는 웹 자원으로도 눈을 돌려야 한다.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개인과 단체가 생산하여 유통하고 있는 정보들은 지금 현재의 예술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과 이에 대한 각자의 관점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는 예술현장에서 생산된 사진, 동영상, 관람평, 이슈들에 관한 논쟁 등 다양한 범주가 어우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과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 조사와 연구 작업의 제도화를 위해서 소장 자료의 특성을 소개하고 해제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장 자료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논문을 수집하여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작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을 병행하여 우리 예술사를 새롭게 밝혀주는 귀한 자료들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보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그 면모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유비쿼터스 환경의 구축과 콘텐츠 이용 환경의 획기적 개선

현대의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은 정보를 가공하고 유통하는 데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정보를 소장하고 있는 장소가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네트워

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언제 어디에서라도 그 내용을 검색하고 확인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다.¹⁶⁾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은 콘텐츠 이용 환경을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컴퓨터 모니터를 이용한 자료의 검색과 열람은 물론이고 휴대전화를 통한 콘텐츠의 검색과 더 나아가서는 감상까지도 그리 어렵지 않을 일이 되었다. 또한 방송과 통신기술의 융합에 따라 가정용 TV 수상기를 통해서도 콘텐츠의 검색과 열람이 가능해지고 있다. 자료의 본문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과 이미지, 동영상 그 매체와 형태를 가리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어떤 정보이든지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아르코예술정보관도 이러한 정보기술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유비쿼터스 라이브러리로 그 면모를 일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콘텐츠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날로그 매체를 디지털로 변환하고, 보다 손쉽게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와 검색시스템을 정비하여 할 것이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저작물의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작권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저작권에 관한 문제는 심각하게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등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의 협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들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저작권을 일률적으로 처리하고, 약간의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고서 저작물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열람 시스템에 혁명적인 변화를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소장하고 있는 동영상자료의 서비스 방안으로 IPTV와 같은 최첨단 서비스와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 예술기록보존기관의 네트워크의 구심점

최근 들어서 예술계 내부에서는 예술기록의 보존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이 그 어느 때보다 무성하다. 지난해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활용방안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 각 분야별로 기록보존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세미나와 자료의 생산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무용부문에서의 <연극제>, 연극부문에서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연극센터, 국립극장의 공연예술박물관, 남해의

16) 이호신(2006),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공연예술자료관 현황과 전망 : 2006 국립극장 세미나 자료집> 13쪽, 서울 : 국립극장.

국제탈공연예술촌 등 예술기록의 보존과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지속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설립을 준비중에 있다. 이런 예술 세부 장르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과 공공부문에서의 예술기록보존기구 설립의 움직임은 보다 전문화되고 심화된 영역에서의 자료와 기록의 수집과 보존을 가능하게 해서 그 동안 거의 빈사상태에 빠져 있던 우리 예술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커다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기구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을 때, 자료의 중복 수집과 유사한 역할 수행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이러한 기관과 단체의 등장은 자칫하면 자료 이용자에게 여러 기관을 중복해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자료의 분산관리로 인하여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따르는 비용을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과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들 기관이나 단체가 초기 단계일 때부터 유관기관과 단체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독자적이고 전문화된 자료 구성으로 이들 각자가 특성화될 수 있도록 이들 기관들과 조율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유기적인 협력과 협의를 바탕으로 새롭게 설립되는 이들 기관들은 그 사업의 설계를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그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목록과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의 표준화 방안을 연구하고 그 동안의 축적된 노하우를 함께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별 단위기관으로서 추진하기 어려웠던 공동의 관심사나 현안사항들에 대한 공동의 대책을 세우고, 각자의 역할을 보다 세심하게 분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예술 전문 용어에 대한 시소러스를 함께 구축하여 정보검색의 과정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협력형 사업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협력형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개별 기관들은 협력의 필요성과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협력이 예술인과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아르코예술정보관은 예술기록보존기관의 선두 주자로서 지난 30년에 가까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러한 공동의 현안사항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술기록보존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구심점으로서 역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의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위상과 역할, 정체성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아르코예술정보관 운영 방향과 주체에 관한 심층적인 검토 필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기능들은 사실 기존의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업무 성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의 업무와는 새로운 차원의 업무가 새롭게 부가가 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르코예술정보관은 이미 절대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힘이 부족한 지경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서는, 앞서 이야기한 여러 사업을 펼치겠다는 주장은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변화된 상황과 앞으로의 사업 전망과 비전을 반영하여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운영 방향을 재설정하고, 사업의 패턴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다른 무엇보다 앞서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지금처럼 독자적으로 모든 예술분야의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인지? 특정한 주제와 장르만으로 자료수집의 범위를 축소하고 해당 장르의 자료의 수집과 관리에만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자료의 수집과 관리는 새롭게 설립되고 있는 각 장르별 기관이나 단체로 모두 이관하고 예술기록보존기관의 메타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변모할 것인지? 서비스의 대상을 지금처럼 예술창작자와 연구자, 그리고 애호가를 두루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상으로 할 것인지? 보다 심화되고 전문화된 그룹으로 초점을 맞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점검과 사업의 재설계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의 과정에서는 앞서 제시된 아르코예술정보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아르코예술정보관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르코예술정보관은 이러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비전을 갖추고 있는지? 예술위원회는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아르코예술정보관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와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이런 아르코예술정보관의 태생적인 한계에 관한 부분에 관한 사항까지도 종합적으로 점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아르코예술정보관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같은 문제점은 예술기록 수집과 보존과 관련된 사업이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하는 예술위원회의 중심사업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고, 인력과 예산의 수급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예술위원회의 조직과 사업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까닭에 아르코예술정보관이 예술위원회 소속의 일개 부서로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위원회의 소속 부서로써는 앞서 언급한 방향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러한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고,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하다면 그 운영체제에 있어서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르코예술정보관을 예술위원회로부터 독립시켜서 별도의 독자적인 기구로 출범시키고 독자적인 인사 구성과 예산 편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화 부문의 경우에는 영화진흥 사업을 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와는 별도로 한국영상 자료원을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하여 영화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을 꾀하고 있음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다.

5. 닫는 말

최근의 예술기록보존기관의 설립과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자료 수집과 보존, 서비스가 예술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그것이 가지는 문제점을 살피고 또 그 발전방향을 살펴보는 작업은 예술계의 해묵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사업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성과 새로운 전망을 바탕으로 앞으로 아르코예술정보관은 단순한 예술자료의 저장고의 기능을 넘어서 당대의 예술을 기록하는 ‘보물창고’로서, 미래의 예술을 생산하는 ‘생산기지’로서, 예술 창조를 위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예술인의 서재’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의 보다 적극적이고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아르코예술정보관은 우리 예술사 서술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집대성하여 연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유비쿼터스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콘텐츠 이용 환경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예술기록보존기관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이끌어주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원천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르코예술정보관의 그 조직과 운영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된다.

자료의 수집과 관리는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 지는 부분이 거의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오랜 시일에 걸쳐서 이루어져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짧은 시일 내에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성급함과 맞부닥치면 언제라도 쉽사리 좌초되어 버리고 말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긴 호흡으로 우리의 미래 예술을 위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는 심정으로, 이러한 사업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지켜 볼 수 있

는 지혜와 여유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아무쪼록 이러한 논의와 담론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서, 그 오랜 목마름을 적셔주는 단비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